



[느리다]

2번 튀기고
75번 붓질
교촌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요리니까



[얇다]

치킨을 시켰는데
튀김옷이 오면
안되니까
튀김옷이 얇아야
맛이 제대로 배니까



[가차없다]

합성첨가물에는
가차없다
좋은 재료가 아니라면
가차없다
건강 앞에는 가차없다



[유난스럽다]

하루 꼬막 숙성시킨 닭과
고르고 고른 천연 꿀
그 누가 뭐라 해도
음식 앞에선
유난스럽다

**교촌은
이런 치킨
입니다**

한국인 체형에 가장 잘 맞는 유도복 !

대명 · 호랑이표 유도복

대한유도회(KJA) 공인



유/도/용/품/전/문/점

- 각종 유도복 · 경기용 매트 · 튜브 · 테이핑 테이프
- T-셔츠 · 메달 · 트로피 외 경기용품 일체

대 명 스포 츠

TEL : 02)441-0806 FAX : 02)481-12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07

대명에서 만든 제품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NEVERDONE

나 를 넘 어 서 다



NEW I-JF

(IJF 국제 공인 도복)

NEW J690 QUEST

(국내 시합용/지도자용)

acskorea.co.kr
adidas combatsports korea
facebook.com/acskorea
구매처 문의 02.3019.3841

JEWOO INTERNATIONAL CO., 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홍스포타운 4층

CONTENTS

Korea Judo Association Vol.114



“으랏차!”

2012년 7월 9일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유도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차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김재범 선수(현 핏츠런파크 코치)와 시범 대련하며 김 선수를 업어지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여년전 군 복무시절 몸에 익혔던 특전 무술 실력(?)을 과시, 주위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도복을 직접 입고 유도인들과의 소통을 몸으로 실천한 문 대통령의 이 유도 이벤트 사진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유도인들에게 벅찬 감동의 한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다.

- 04 제56회 전국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 14 2017 아시아 및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발전
- 16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대회일정 및 선수 프로필
- 24 원로와의 대화 - 한국유도원 김정행 이사장
- 28 특별인터뷰 - 대한유도회 김진도 회장
- 32 2017 대표팀 유럽전지훈련
- 34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 36 참관기 -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를 다녀와서 (김영석 스포츠다이어리 대표)
- 38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 43 제10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 48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유도
- 50 유도장 탐방 - 부산하단유심유도관
- 54 유도뉴스 및 유도인 동정
- 60 대한유도회 - KEB하나은행 제휴 단증카드 출시
- 62 유도기록실
- 76 2017년도 1, 2차 정기승단자 명단
- 84 2017 동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 수료자명단
- 86 2017 전국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 수료자 명단
- 87 2017년 7~9월 일정 및 유도복 공인업체 안내
- 88 시도지부 유도회 및 연맹 주소록

제56회 전국 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를 향한 마지막 과정



원중훈

황민호

6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겸한 제56회 전국 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가 끝난 이날 오후, 대한유도회는 선수선발위원회를 열어 세계유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글/ 이광준(J&J미디어 기자) 사진/ 유용우(J&J미디어 사진기자)

강원도 맑은 공기 아래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가 대표를 향한 선수들의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가대표라는 무게에 걸맞게 관심도 대단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원희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들이 자리를 빛냈다. 평소 남다른 유도사랑을 보이던 탤런트 이훈도 찾아와 관심을 내비쳤다.

대회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토너먼트와 다르게 한번 지더라도 패자부활전을 거쳐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기면 우승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1, 2위 결정전에 전승으로 직행한 선수가 1, 2위 결정전에서 패하게 되면 재대결이 펼쳐진다. 체급별로 각각 8명의 선수들이 대전을 이뤘다. 단, 부상 등으로 빠진 선수들은 기권으로 처리됐다.

남자부

-60kg급

세계랭킹 1위 김찬녕(용인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민고 시절부터 천재라는 평가를 받은 김찬녕은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최강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올라온 전승범(용인대)을 허리후리기로 완벽하게 제압, 한판승을 따내며 최강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66kg급

재일교포 3세로 주목받은 김임환(렛츠런파크)이 정상에 올랐다. 예선부터 화끈한 안다리 공격과 누르기 한판승을 보여줬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올라



김찬녕

온 신호(용인대)와 1, 2위 결정전에서 2분 44초만에 누르기로 한판승을 따내며 우승을 따냈다. 한편 세계랭킹 1위 안바울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73kg급

강헌철(용인대)이 같은 대학 소속인 안준성을 꺾고 우승했다. 강헌철은 예선에서부터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강헌철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올라온 안준성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상대 지도를 얻어내 승리했다. 한편 세계랭킹 3위 안창림은 부상으로 불참했다.

-81kg급

세계랭킹 32위인 이승수(여수시청)가 1위에 올랐다. 이승수는 예선 결승 송민기(경철체육단)와 대결에서 상대에게 지도 3개를 이끌어내며 1, 2위 결정전에 직행했다. 한편 송민기는 이재형(포항시청)과의 패자부활전 결승에서 지도 두 개를 범하며 패해 고배를 마셨다. 1, 2위 결정전 첫 경기에서 이재형이 절반 발기술로 승리를 따냈다. 이어진 재경기는 심기일전한 이승수가 한판 누르기로 굳히기에 성공하며 정상에 차지했다.

-90kg급

가장 하위 시드였던 정원준(철원군청)이 우승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정원준은 예선 결승에서 이재용(고레일)을 만나 승리를 거두고 1, 2위 결정전에 직행했다. 패자부활전 결승을 통해 이재용이 다시 정원준을 만났다. 정원준이 재대결서도 배대뒤치기로 절반을 따내며 우승했다.

-100kg급

세계 랭킹 93위 원종훈(경철체육단)이 우승했다. 원종훈은 이민혁(부산광역시청)과 예선 결승에서 발목받치기로 절반을 따내 1, 2위 결정전에 올랐다. 원종훈은 패자 부활전에서 올라온 김이현에 1, 2위 결정전에서 허리메치기로 한판승을 거두고 1위에 올랐다.

+100kg급

베테랑 김성민(렛츠런파크)이 깔끔한 경기 운영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김성민은 예선 결승에서 강진수(독도스포츠타단)에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뒀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1, 2위 결정전에서 만난 두 선수. 이번에도 김성민이 웃었다. 김성민은 이번에는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재형

홍석웅







여자부

-48kg급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안산시청)이 라이벌 강유정(용인대)을 상대로 승리하며 우승했다. 1, 2위 결정전에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온 강유정이 상대 지도를 잘 지켜내며 먼저 승리했다. 그러나 재대결에서는 정보경이 집중력을 발휘, 연장 접전 끝에 상대 지도를 유도해 우승을 차지했다.

-52kg급

박다솔(용인대)이 김미리(제주특별자치도청)를 꺾고 1위 자리에 올랐다. 박다솔은 권애림(동해시청)과의 예선 결승에서 한팔 업어치기로 절반을 얻어 1, 2위 결정전에 직행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김미리가 올라와 맞대결을 펼쳤고, 각각 지도 1개씩을 범해 연장전에 돌입했다. 1분 29초 김미리가 지도를 하나 더 범하며 결국 우승은 박다솔에게 돌아갔다.

-57kg급

김새리(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저력을 발휘하며 우승했다. 세계랭킹 9위 권유정(한국체대)이 일찌감치 예선 결승에 도착했지만 부상으로 기권했다. 이에 지운서(동해시청)가 1, 2위 결정전에 올랐다. 김새리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지운서와 1, 2위 결정전에서 만났다. 김새리는 첫 경기에서 발다리걸기로 절반승을 거뒀고, 재대결에서는 허벅다리걸기로 한판승에 성공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63kg급

최은솔(인천광역시청)이 명지혜(부산광역시북구청)

를 꺾고 이 체급 최고가 됐다. 두 선수는 예선 결승에서 먼저 맞붙었다. 최은솔은 안뒤축걸기로 절반을 따내고 이어진 굳히기를 통해 한판승을 기록하며 1, 2위 결정전에 진출했다. 패한 명지혜는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났으나 다시 맞붙은 대결에서도 승리는 최은솔이 차지했다. 상대방 지도 하나를 잘 지켜 승리했다.

-70kg급

세계랭킹 15위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우승을 따냈다. 김성연은 예선 결승에서 정혜진(안산시청)을 만나 안뒤축걸기로 절반을 따내 승리하고 1, 2위 결정전에 직행했다. 한편 정혜진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한 번 김성연에게 무너졌다. 1, 2위 결정전에서 김성연은 발목받치기를 통해 절반을 얻어 체급 1위 자리를 손에 넣었다.

-78kg급

이정윤(용인대)이 접전 끝에 최강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이정윤은 박유진(동해시청)과 만난 예선 결승에서 상대 지도를 잘 지켜 1, 2위 결정전에 올



강유정

정보경



김성연

정혜진

랐다. 패자부활전에서는 황예슬(포항시청)이 분전하며 1, 2위 결정전으로 향했다. 이정윤과 황예슬이 맞붙은 1, 2위 결정전은 정규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연장에 돌입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황예슬을 상대로 이정윤이 집중력을 발휘, 허리후리기로 한판승을 통해 승리했다.

+78kg급

세계랭킹 10위 김민정(렛츠런파크)이 거둬들인 한판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정은 이은주(제주특별자치도청)와 만난 예선 결승에서 허벅다리걸기로 한판승을 따냈다. 이은주는 심기일전하여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해 다시 김민정에 맞섰다. 그러나 김민정은 굳건했다. 허리채기를 이용해 절반을 따낸 김민정은 이를 굳히기로 연결, 한판으로 이어가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

제56회 전국 체급별 유도 선수권대회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파견 최종 평가전 겸)

• 기간 : 2017년 6월 13~14일 • 장소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개인전 - 남자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60kg		김찬녕 (용인대)	전승범 (용인대)	황태원 (용인시청)	최인혁 (대구광역시청)	이하림 (용인대)	김재현 (한국체대)	임은준 (경기대)	
-66kg		김임환 (렛츠런파크)	신 호 (용인대)	김휘건 (한국체대)	김원진 (경남도청)	정용욱 (한국체대)	조준현 (수원시청)	엄현준 (독도스포츠타)	
-73kg		강현철 (용인대)	안준성 (용인대)	서동규 (인천시청)	최준근 (광주시체육회)	전지원 (계명대)	김영주 (경남도청)	이정민 (독도스포츠타)	
-81kg		이승수 (여수시청)	이재형 (포항시청)	송민기 (경찰체육단)	이위진 (용인대)	이영준 (코레일)	홍석웅 (용인시청)	이문진 (용인대)	이희중 (렛츠런파크)
-90kg		정원준 (철원군청)	이재용 (코레일)	김형기 (용인대)	김태호 (용인대)	고인혁 (용인대)	곽동한 (하이원)	김한수 (경기대)	
-100kg		원중훈 (경찰체육단)	김이현 (경찰체육단)	이만혁 (부산광역시청)	황민호 (경찰체육단)	김현철 (국군체육부대)	홍진수 (용인대)	허준영 (국군체육부대)	
+100kg		김성민 (렛츠런파크)	강진수 (독도스포츠타)	주영서 (용인대)	김민중 (보성고)	김경태 (포항시청)	정병철 (여수시청)	지근배 (남양주시청)	김도형 (경남도청)

개인전 - 여자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48kg		정보경 (안산시청)	강유정 (용인대)	이혜경 (광주도시철도공사)	장지영 (제주도청)	박은이 (한국체대)	오영지 (용인대)	문소연 (경남도청)	손선혜 (충북도청)
-52kg		박다솔 (용인대)	김미리 (제주도청)	권애림 (동해시청)	허주희 (고창군청)	장예진 (용인대)	정정윤 (충북도청)		
-57kg		김새리 (광주도시철도공사)	지윤서 (동해시청)	권유정 (한국체대)	이재란 (용인대)	차유미 (대전서구청)	김미래 (용인대)	정예린 (용인대)	
-63kg		최은솔 (인천광역시청)	명지혜 (부산북구청)	한희주 (용인대)	김슬기 (동해시청)	박다운 (용인대)	김지정 (한국체대)	상민경 (충북도청)	박혜진 (대전서구청)
-70kg		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	정혜진 (안산시청)	김혜미 (한국체대)	류도희 (용인대)	남아림 (성동구청)			
-78kg		이정윤 (용인대)	황예솔 (포항시청)	박유진 (동해시청)	성초롱 (대전서구청)	박은지 (충북도청)	김별희 (포항시청)	채윤지 (한국체대)	홍은영 (경남도청)
+78kg		김민정 (렛츠런파크)	이은주 (제주도청)	한미진 (용인대)	박다운 (대전서구청)	김지윤 (동해시청)	신지영 (동아대)	이정은 (인천시청)	조아라 (충북도청)

“은퇴 직전까지 선수생활 하고파”

남자 100kg이상급 1위 김성민

화제의
스타!



지난 6월 14일 열린 남자 100kg이상급에서 김성민(헛트르네파크)이 여전한 기량을 선보이며 후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김성민은 우석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부터 국가대표 무제한급으로 활약해왔다. 그간 수많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한국 남자 무제한급에서 꾸준히 최정상 자리를 지켜왔다. 어느 새 나이가 삼십을 넘었지만 그 출중한 기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았던 김성민은 국가대표 발탁을 위해서는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이 절실했다. 게다가 지난 아시아선수권에서 얻은 부상으로 몸도 성치 않은 상태. 그렇지만 그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이 끝나고 만난 그는 부담을 훌훌 털어버린 밝은 표정이었다. 오늘 경기에 대해 “아시아선수권에서 작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오늘 초반 경기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경기가 거듭될수록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후 제 페이스를 찾아 우

승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풍부한 경력을 자랑하는 김성민이지만 세계선수권 대회와는 인연이 깊진 않았다.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한 때가 많았기 때문. 그는 이번 대회가 그간의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부상 때문에 세계선수권에 자주 참가하지 못했다. 최종 목표는 내년엔 있을 아시안게임이지만 그 전초전 격인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번 대회를 향한 다짐을 남겼다. 김성민은 하루빨리 본인보다 뛰어난 후배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후배들이 자신을 꺾을 때, 은퇴를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동선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으로 꺾으면 물러서는 것이 맞다. 나 역시 후배들이 올라와 실력으로 물리쳐줘 은퇴를 하고픈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수생활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유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각오를 남겼다.

깜짝 스타 넘어 여자 유도 간판으로...

여자 48kg이하급 1위 정보경

리우 올림픽에서 깜짝 활약하며 한국 대표팀에게 첫 메달을 선물했던 여자 유도 48kg이하급 정보경(안산시청)이 이번 대회에서 라이벌 강유정(용인대)을 꺾고 체급 1위에 올랐다.

대회 시상식 후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154cm의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위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보경은 평소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강유정을 마지막 1, 2위 결정전에서 만나 굉장한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예선 결승에서도 맞붙었던 터라 그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였다고. “강유정과는 대회 등에서 자주 만나 인연이 깊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 기술을 걸기가 굉장히 꺼려웠다. 1, 2위 결정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강유정의 패기가 엄청났다. 그래서 첫 경기를 패하게 됐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온 집중력을 짜내 결국 마지막 경기를 승리했다. 라이벌 강유정을 상대로 얻은 우승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며 깜짝 스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에 정보경은 “그 당시 남자 유도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런 와중에 내가 메달을 따 모두가 놀라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다. 나에게 과분한 별명”이라며 그 당시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은 다음 세계대회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운동선수라면 모름지기 모든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어떤 곳에서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유도 인기가 조금 식은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리우 올림픽 깜짝 스타를 넘어 여자 유도 간판으로



화제의 스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정보경. 그의 각오대로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응원한다.

2017 아시아 및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발전

2017년 한국 청소년대표 15명이 선발됐다.

지난 6월 15일부터 이틀동안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선발전이 열렸다. 남녀 15체급에서 열전이 펼쳐졌다. 이 대회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아시아 청소년 대회(7월 13일~16일, 키르기스스탄)와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10월 18~22일, 크로아티아)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다.



남자부

의정부 경민고를 졸업하고 올해 용인대에 입학한 새내기 전승범(용인대)이 60kg이하급 결승서 장석진(세한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성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우승,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전승범은 이로써 청소년 및 성인 세계선수권대회에 모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55kg이하급에선 박건태(충남체고)가 백세웅(목포고)에 업어치기 한판승, 송하성(대구외대)에 뒤허리안아메치기 절반승을 거둔후 결승서 박준호(금호공고)에 지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66kg이하급에선 김휘건(한국체대)이 고승조(용인대)에 발뒤축걸기 절반승을 거두고 티켓을 따냈다. 김휘건은 앞선 경기서 손인호(경기대), 박호현(용인대), 윤용호(청주대)를 차례로 눌렀다.

73kg이하급에선 안재식(한국체대)이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며 5경기를 한판 혹은 절반으로 상대를 꺾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안재식은 결승서 박희원(선문대)에 안뒤축걸기 한판승을 거두었다. 가장 많은 37명이 출전한 81kg이하급에선 이위진(용인대)이 손화섭(청주대)에게만 지도승을 거두었을뿐 나머지 4경기를 모두 한판승으로 장식하며 정상에 올랐다.

90kg이하급에선 박영찬(용인대)이 김유철(용인대)에 가로누르기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박영찬은 최진우(청주대)와 김한수(경기대)를 잇달아 업어치기 절반으로 꺾은뒤 한지훈(해동고)에 지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100kg이하급에선 최민철(영남대)이 우승,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포항 양학초와 동지중, 동지고를 나온 최민철은 고교시절 3위만 여러 차례 차지했을 뿐 정상급 선수로 올라서지 못했다. 대학진학 이후에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올들어 기량이 급상승하기 시작, 이번 대회 32강에서 빈경렬(경기대)에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16강서 김혜민(경운대)에 누르기 한판, 8강서 김홍선(경기대)에 업어치기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이어 준결승에서 같은 학교 최정환에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는 등 4경기 연속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뒤 임혜원(용인대)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지도승으로 정상에 섰다.

11명이 출전한 100kg이상급에선 김민중(보성고)이 양성민(용인대)에 안아조르기 한판승, 조성민(인하대)에 모두걸기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여자부

48kg이하급에선 기대주 유주희(경기체고)가 우승했다. 유주희는 결승전에서 대학생 선배인 박서연(경기대)을 맞아 안뒤축걸기 절반을 먼저 빼앗기며 불안감을 드러웠으나,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업어치기 절반 2개를 잇따라 빼앗아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이로써 지난 시즌 5관왕 유주희는 이번 시즌서도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우승을 시작으로 2017 아시아·세계유소년선수권 대표선발전(이상 3월), 제88회 YMCA 전국 유도대회(4월)에 이어 4개 대회 연속 정상 차지하며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유주희는 준결승서 박민진(영서고)을 발다리 절반 2개와 지도 1개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52kg이하급에서는 송나영(용인대)이 1위에 올랐다. 송나영은 강한비(대구외대)를 가로누르기 한 판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팀 동료 이근혜에게 지도승을 거두었다.

57kg이하급에선 굳히기 기술이 뛰어난 재일교포 김지수가 신유리(광주체고)와 김재령(한국체대)에게 결누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63kg이하급에선 한희주(용인대)가 김지정(한국체대)을 업어치기되치기 절반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한희주는 최지우(한국체대), 박민희(한국체대)를 팔가로누워끼기 한판승으로 제압했다.

70kg이하급에선 김성은(한국체대)이 김은솔(경민IT고)에 결누르기 한판승으로 우승했다.

78kg이하급에선 손정연(용인대)이 김민영(삼정고), 명선화(한국체대), 채윤지(한국체대)를 차례로 장기인 결누르기 기술로 뿌리치고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78kg이상급에선 여고생 김하윤(삼정고)이 김예솔(용인대)과 임보영(경민IT고)을 꺾고 정상의 기쁨을 누렸다. 🏆

남자부

체급/순위	1위	2위	3위	
-55kg	박건태(충남체고)	박준호(금호공고)	송하성(대구외대)	박찬혁(광주체고)
-60kg	전승범(용인대)	장석진(세한대)	오세영(인하대)	장성진(계명대)
-66kg	김휘건(한국체대)	고승조(용인대)	이진규(신철원고)	윤용호(청주대)
-73kg	안재식(한국체대)	박희원(선문대)	안준성(용인대)	최 훈(경민고)
-81kg	이위진(용인대)	이준성(한국체대)	박용현(한국체대)	김대호(용인대)
-90kg	박영찬(용인대)	김유철(용인대)	명범석(용인대)	한지훈(해동고)
-100kg	최민철(영남대)	임혜원(용인대)	심재우(보성고)	최정환(영남대)
+100kg	김민종(보성고)	성준협(주문진고)	조성민(인하대)	오성찬(경운대)

여자부

체급/순위	1위	2위	3위	
-48kg	유주희(경기체고)	박서연(경기대)	정경은(광주체고)	
-52kg	송나영(용인대)	이근혜(용인대)	추희선(철원여고)	
-57kg	김지수(재일교포)	김재령(한국체대)	전은빈(용인대)	남은영(용인대)
-63kg	한희주(용인대)	김지정(한국체대)	박민희(한국체대)	김현지(용인대)
-70kg	김성은(한국체대)	김은솔(경민IT고)	윤주희(영서고)	류예담(한국체대)
-78kg	손정연(용인대)	채윤지(한국체대)	명선화(한국체대)	이예원(한국체대)
+78kg	김하윤(삼정고)	임보영(경민IT고)	김예솔(용인대)	백주희(포항시청)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가 8월 28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

한국은 남자 7체급에 9명, 여자 7체급에 9명 모두 18명이 세계정상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66kg이하급 세계 랭킹 1위 안바울(남양주시청)은 작년 리우올림픽서 은메달에 그친 한을 풀 예정이다. 또 남자 73kg이하급 세계 랭킹 3위이자 2017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안창림(수원시청)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 남자 90kg이하급 리우올림픽 동메달 광동한(하이원)과 남자 100kg이상급 2017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김성민(렛츠런파크)도 메달 기대주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금메달 2만5천달러, 은메달 1만3천달러, 동메달 6천달러의 상금도 걸려 있어 메달 경쟁이 한층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회기간 및 장소

대회기간	2017년 8월 28일 ~ 9월 3일
대회장소	<p>헝가리 / 부다페스트 (László Papp Budapest Sports Arena)</p> 

● 대회 주요일정

8월 26일(토)	선수등록 (09:00 ~ 21:00)
8월 27일(일)	대진추첨 (14:00) 공식계체 (20:00 ~ 20:30, 남자 -60kg, 여자 -48kg)
8월 28일(월)	개인전 경기 ▶ 남자 -60kg / 여자 -48kg 공식계체 (20:00 ~ 20:30, 남자 -66kg, 여자 -52kg)
8월 29일(화)	개인전 경기 ▶ 남자 -66kg / 여자 -52kg 공식계체 (20:00 ~ 20:30, 남자 -73kg, 여자 -57kg)
8월 30일(수)	개인전 경기 ▶ 남자 -73kg / 여자 -57kg 공식계체 (20:00 ~ 20:30, 남자 -81kg, 여자 -63kg)
8월 31일(목)	개인전 경기 ▶ 남자 -81kg / 여자 -63kg 공식계체 (20:00 ~ 20:30, 남자 -90kg, 여자 -70kg, -78kg)
9월 1일(금)	개인전 경기 ▶ 남자 -90kg / 여자 -70kg, -78kg 공식계체 (20:00 ~ 20:30, 남자 -100kg, +100kg, 여자 +78kg)
9월 2일(토)	개인전 경기 ▶ 남자 -100kg, +100kg / 여자 +78kg 공식계체 (20:00 ~ 20:30, 혼성 단체전) 혼성 단체전 대진추첨
9월 3일(일)	혼성 단체전 경기 ▶ 남자 -73kg, -90kg, +90kg 여자 -57kg, -70kg, +70kg

● **경기시간** | 8월 28일 ~ 9월 2일 10:00 ~ 18:30 / 9월 3일 09:00 ~ 18:30

● **개 회 식** | 8월 28일 15:00 ~ 15:30(현지시각)

● 시상 및 상금

순위	개인전	혼성단체전
1위	금메달, 상금 USD 25,000	금메달, 상금 USD 60,000
2위	은메달, 상금 USD 13,000	은메달, 상금 USD 40,000
3위	동메달, 상금 USD 6,000	동메달, 상금 USD 25,000

※ 자세한 정보는 www.ijf.org (국제유도연맹) 참조



남자부

**-60kg 전승범**

용인대

- 생년월일 | 1998년 3월 24일
- 출신학교 | 덕계초-경민중-경민고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62cm, 62kg
- 세계랭킹 | 246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2위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2위
2016 홍콩국제대회 1위
2016 전국체육대회 1위

**-66kg 김임환**

렛츠런파크

- 생년월일 | 1992년 5월 6일
- 출신학교 | 조선제일초-아이하리중-낙타고-토카이대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65cm, 70kg
- 세계랭킹 | 44위
- 주요전적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1위
2016 터키그랑프리 1위
2016 국가대표 2차선발전 1위
2015 칭따오그랑프리 3위

**-66kg 안바울**

남양주시청

- 생년월일 | 1994년 3월 25일
- 출신학교 | 석수초-범계중-금곡고-용인대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69cm, 70kg
- 세계랭킹 | 1위
- 주요전적 | 2016 리우올림픽대회 2위
2016 마스터스 1위
2017 유러피언오픈로마 1위
2016 독일그랑프리 1위



-73kg 안창림

수원시청

- 생년월일 | 1994년 3월 21일
- 출신학교 | 교토제일초-하치조중-토인고-용인대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73cm, 76kg
- 세계랭킹 | 3위
- 주요전적 | 2017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2017 파리그랜드슬램 2위
2016 파리그랜드슬램 1위
2016 뒤셀도르프그랑프리 3위



-81kg 이재형

포항시청

- 생년월일 | 1993년 5월 14일
- 출신학교 | 인천부마초-보성중-보성고-용인대
- 주 특 기 | 허벅다리걸기
- 신장·체중 | 178cm, 82kg
- 세계랭킹 | 77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2위
2017 전국실업최강전 1위
2016 칭다오그랑프리 1위
2016 제주컵대회 1위



-90kg 이재용

코레일

- 생년월일 | 1990년 12월 24일
- 출신학교 | 신일초-경민중-경민고-용인대
- 주 특 기 | 허리후리기
- 신장·체중 | 180cm, 90kg
- 세계랭킹 | 63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2위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2위
2017 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2017 전국실업최강전 1위



-90kg 광동한

하이원

- 생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출신학교 | 용흥초-동지중-동지고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84cm, 90kg
- 세계랭킹 | 5위
- 주요전적 | 2016 리우올림픽대회 3위
2017 파리그랜드슬램 3위
2017 유러피언오픈로마 3위
2016 파리그랜드슬램 3위



-100kg 원종훈

경찰체육단

- 생년월일 | 1992년 6월 25일
- 출신학교 | 삼선초-비봉중-비봉고-용인대
- 주 특 기 | 허리안아돌리기
- 신장·체중 | 184cm, 105kg
- 세계랭킹 | 68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1위
2017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2017 전국실업최강전 1위
2016 아시안오픈타이페이 1위



+100kg 김성민

렛츠런파크

- 생년월일 | 1987년 6월 29일
- 출신학교 | 전주인후초-전주남중-우석고-용인대
- 주 특 기 | 허리후리기
- 신장·체중 | 190cm, 130kg
- 세계랭킹 | 12위
- 주요전적 | 2017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1위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1위
2016 독일그랑프리 3위



여자부



-48kg 강유정

용인대

- 생년월일 | 1996년 8월 2일
- 출신학교 | 문수초-무선중-여수정과고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56cm, 50kg
- 세계랭킹 | 16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1,2차선발전 1위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2위
2017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2017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 3위



-52kg 권애림

동해시청

- 생년월일 | 1991년 5월 20일
- 출신학교 | 남산초-입석여중-화원고-한국체대
- 주 특 기 | 허벅다리걸기
- 신장·체중 | 160cm, 54kg
- 세계랭킹 | 100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2위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3위
2016 청풍기초중고대회 2위



-57kg 지윤서

동해시청

- 생년월일 | 1992년 9월 23일
- 출신학교 | 명륜초-북원여중-영서고-용인대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62cm, 59kg
- 세계랭킹 | 81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2위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2위
2016 유러피언오픈로마 3위
2016 전국체육대회 3위



-57kg 권유정

한국체대

- 생년월일 | 1995년 6월 17일
- 출신학교 | 남수원초-관산중-경기체고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64cm, 60kg
- 세계랭킹 | 12위
- 주요전적 | 2017 파리그랜드슬램 1위
2017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 2위
2017 국가대표 1, 2차선발전 1위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3위



-63kg 한희주

용인대

- 생년월일 | 1997년 9월 2일
- 출신학교 | 금오초-경민여중-경민여고
- 주 특 기 | 허벅다리걸기
- 신장·체중 | 167cm, 65kg
- 세계랭킹 | 127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3위
2017 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2017 전국청소년선수권대회 1위
2016 추계대학연맹전 1위



-70kg 정혜진

안산시청

- 생년월일 | 1995년 4월 18일
- 출신학교 | 철원초-철원여중-철원여고-용인대
- 주 특 기 | 허벅다리걸기
- 신장·체중 | 170cm, 74kg
- 세계랭킹 | 69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2위
2017 국가대표 1, 2차선발전 3위
2017 전국실업최강전 3위
2016 전국체육대회 1위



-70kg 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

- 생년월일 | 1991년 4월 16일
- 출신학교 | 신흥초-전남체중-전남체고-용인대
- 주 특 기 | 업어치기
- 신장·체중 | 172cm, 70kg
- 세계랭킹 | 10위
- 주요전적 | 2017 국가대표 2차, 최종평가전 1위
2017 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2016 파리그랜드슬램 1위
2016 마스터스 3위



-78kg 박유진

동해시청

- 생년월일 | 1993년 6월 25일
- 출신학교 | 웅상초-웅상여중-경남체고-용인대
- 주 특 기 | 허벅다리걸기
- 신장·체중 | 178cm, 80kg
- 세계랭킹 | 11위
- 주요전적 | 2017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 2위
2017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3위
2017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78kg 김민정

렛츠런파크

- 생년월일 | 1988년 8월 8일
- 출신학교 | 목포유달초-목포여중-여수정고-한국체대
- 주 특 기 | 허리후리기
- 신장·체중 | 180cm, 98.5kg
- 세계랭킹 | 8위
- 주요전적 | 2017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 1위
2017 파리그랜드슬램 3위
2017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1위
2017 국가대표 2차선발전 1위

“대한체육회장 그만두니 마음 편합니다”

한국유도원 김정행 이사장

“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니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평생을 유도와 학교(용인대)에 몸담았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3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년 7개월간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대한체육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특정인을 원망하거나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자서전도 펴내려고 합니다.”

글/ 이종세(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유도 8단) 사진/ 유용우(J&J미디어 사진기자)

재작년 2번의 수술받아 건강 악화… 이제 거의 회복

작년 10월 5일 제39대 대한체육회장에 이기흥(62)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당선됨으로써 제38대 대한체육회장 직에서 물러난 김정행(74) 한국유도원 이사장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2013년 2월 23일 유도인으로는, 또 국가대표 선수출신의 경기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체육 수장의 영예를 안았던 김정행 이사장. 하지만 그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갖은 난관에 부딪혔고 마침내 2015년에는 두 번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에서 가진 필자와의 인터뷰 때에도 지팡이를 들고 나왔다.

Q 지팡이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직도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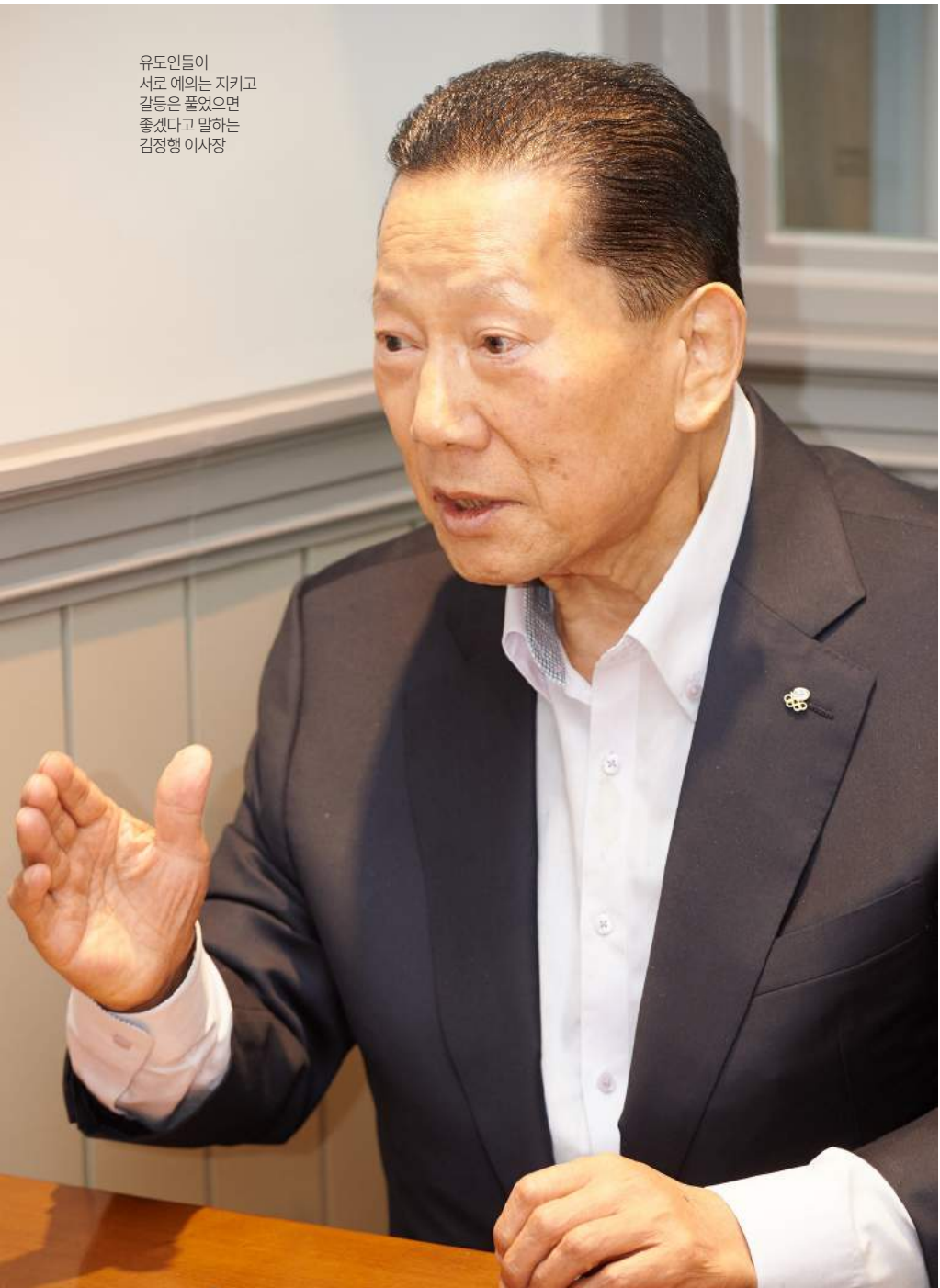
A “아! 재작년 수술 후 지팡이에 몸을 의존했는데 꾸준한 재활훈련으로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걷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지팡이를 사용하다가 놓으려 하니 손이 허전한 것 같아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Q 대한체육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 “경기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대한체육회장 자리는 꿈이요, 로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도 대표 선수, 유도 대표팀 코치 감독을 거쳐 대한유도 회장을 하면서 16년간이나 대한체육회 부회장 직을 수행했던 저 역시 대한체육회장 직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도인의 명예를 걸고 더욱 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눈외로 하더라도 제가 추천하고 영입한 대한체육회 이사들마저 일부를 제외하곤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5년 10월 박용성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대한유도회장 직을 6회에 걸쳐 18년간 맡았던 김이사장은 대한유도회보다 대한체육회 운영이 훨씬 어려웠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95년 역사의 대한체육회와 24년 된 국민생활체육회의 1대1 통합을 놓고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생활체육회만 두둔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기도 했다.

유도인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갈등은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정형 이사장



김정행 이사장(오른쪽)이 이종세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왼쪽)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여러 차례 문체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장 자리 내놓기도

Q 대한체육회 내부보다는 문체부 등의 외압 때문에 여러 차례 대한체육회 회장직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A “그렇지요. 1991년 박철언 당시 체육청소년부장관이 1년 뒤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위원회를 떼어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당시 명칭)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조직이 대한체육회를 인수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한 마디로 20여 년 전 집 나간 동생이 뒤늦게 돌아와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먼저 떠오른 분이 1961년 1월 초대 민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가 5·16혁명으로 3개월 18일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철승 제18대 대한체육회

장(2016년 작고)이었습니다. 그 분은 회장직을 4개월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2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부터 김종덕 문체부 장관(6월 15일 현재 구속 중) 등에게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물러날 수도 없었고 스트레스만 쌓여 갔습니다. 급기야 심장 등 큰 수술을 2번이나 하는 와중에 모친상까지 당했으나 빈소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 대목에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돌아가신 모친을 회상하는 듯 했다. 그는 그 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 모친상을 당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인 전 날 포항 장례식장까지 이동해 어머니께 작별인사만 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

아만했다. 당시 문체부 등으로부터 온갖 외압에 시달렸던 그에게 대한체육회장 시절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이사장은 “모든 체육인들이 이기흥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대한체육회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바뀌고 문체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자들도 모두 바뀌었으니 이제 한국체육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유도원, 지난 6년간 대한유도회 등에 5억 원 지원

Q 그럼 이제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 이야기를 하시지요.

A “제가 한국유도원 이사장을 맡은 것은 2013년 5월부터입니다. 전임 여규태 이사장님이 2011년 빗더미였던 여의도의 한국유도원 건물을 450억 원에 처분해 250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3-1의 8층 건물(대지 302평, 연건평 5,109평)을 인수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대한유도회와 초중고 유도연맹 등 산하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까지 지원하면 2012년부터 6년동안 한국유도원의 지원금액은 모두 5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유도 사상 전례가 드문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955년 대한유도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발족한 한국유도원(초대 이사장 한진희)은 1995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유도회에 1억 원의 재정지원을 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유도원은 이후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다 적자가 누증, 그동안 목적사업인 대한유도회와 산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한국유도원의 목적사업은 대표팀의 훈련과 유소년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말하는데 빗더미에 눌러 있다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제 한국유도원은 여타 경기단체들이 부러워할 수준의 지원을 대한유도회와 산하단체에 하고 있다.

“원로 유도인 복지위해 운동, 휴식 공간 마련할 것”

Q 대한유도회의 지원 외에도 원로 유도인의 복지를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예. 유도원 여유자금으로 어제(5월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196-14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의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건물(대지 104평, 건축연면적 248평)을 34억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7월중에 건물을 인수하면 임차인과 협의해 지하1층을 유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유도인들이 수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로 유도인들에게는 매일 식권을 지급해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원은 월 1천여만 원의 이 건물 임대수입 가운데 일부를 사용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유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가 있으시다면...

A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화합과 소통은 유도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진도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유도회는 당장 내년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를 잘 준비해야하고 유도인들도 현 집행부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유도는 도(道)와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유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정삼현 8단과 조재기 8단의 9단 승단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뒤틀바라지 20년 결실 거둘 때 됐지요”

대한유도회 김진도 제37대 회장

2017 세계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유도 국가대표 최종평가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4일, 대회가 열리고 있는 양구 문화체육 회관에서 대한유도회 김진도 회장을 만났다.

사업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도와 관련이 있는 곳이면 가지 않고 찾아다니는 김 회장은 이틀전 남양주 시청에서 이석우 남양주 시장에게 공로 4단증을 수여하고 양구로 건너와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틀째 경기를 참관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집 떠나온 지 닷새째다. 이러다가 마누라 얼굴도 잊어 버리겠다”고 농담하며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김 회장은 대구 토박이로 경상도 엑센트의 사투리로 응답했지만 독자 편 의상 표준말로 기사를 작성했다.

글/ 박진환(한국체육언론인회 이사) 사진/ 유용우(U&J미디어 사진기자)

유도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현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김진도 대한유도회 회장



유도명문 대구 계성중고 출신 “미국 가고싶어 도복입었다”

Q 유도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요?

A “제가 유도명문 대구 계성중, 고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수도를 배웠는데 막상 유도를 접하고 보니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더군요.

그런데 당시 꿈이 미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범이 되면 쉽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용인대에 진학, 유도를 전공했지요. 하지만 졸업 후 섬유사업을 시작하고는 도장과 인연이 끊겼지요. 지난 97년 대학시절 은사인 김정행 유도원 이사장(전 대한체육회장)의 권유로 유도회 부회장을 맡으며 다시 유도와의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요즘은 도복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 현재 9단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제 실력으로 평가받은 것이고 아직은 누구와 대련을 해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Q 회장 취임 1년이 되어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지난 15년 6월 전임 회장의 폭력 추문으로 대형 직을 맡다가 8월에 회장에 선임되었고 작년 7월 생활체육과의 통합으로 다시 선거를 통해 회장이 되었으니 2년 사이에 두 차례 연임한 셈이 됩니다. 전임 회장이 협회 기금을 4억 원 쯤 축내 놓아 이를 복구하느라 힘들었지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협회가 경비를 부담하여 작년 올림픽 때 체급별로 훈련파트너를 동반 출전시켰던 게 기억에 남는군요.”

Q 그런데도 ‘노 골드’에 그쳐 실망이 크셨지요?

A “변명같지만 심판배정이 불리했던 것도 사실 이구요. 출전 직전에 남자감독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퇴하고 여자감독이 총괄하게 되어 지도부 공백

이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여러 명 당시 세계랭킹 정상에 랭크돼 있어 상대적으로 견제를 많이 받았고 전력이 노출돼 있던 것도 패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각종 국제대회 단장만 50여 차례 “수익 투자했지요”

Q 그동안 유도에 투자도 많이 하셨지요?

A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선수권대회 2차례를 비롯 각종 국제대회 단장으로 50번도 넘게 나갔을 겁니다. 단장은 선수들 뒷바라지하러 가는 자리지요. 밥도 사고 용돈도 주면서 사기를 복돋워 좋은 성적을 내게끔 해야지요. 아마 수익은 썼을 겁니다. 물론 제 항공권은 제 돈으로 구입했지요. 국위 선양을 위해 봉사한 셈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정부에서 선수나 지도자들은 각종 포상을 하는데 저는 그 흔한 장관 표창 한번 못 받았습시다. 그건 많이 아쉽네요.

저는 사업가로서 3천만 볼 탐을 비롯 대통령, 산업통산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 유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김진도 회장이 대한유도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Q 생활체육으로서 유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급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요?

A “유도는 땀을 흘리는 운동입니다. 또한 힘을 동반해야 하는 운동이지요. 당연히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에게는 호신술로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도 선수의 저변 확대와 육성을 위해서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학교 스포츠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한국 유도원(이사장 김정행)의 도움으로 해마다 초중고 연맹 대회에 2천만 원, 청풍기 및 제주컵 대회에 2천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섬유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성공 비결은 뭘까요?

A “대학 졸업 후 섬유사업을 하던 매형의 간절한 요청으로 공장 운영의 책임(공장장)을 맡아 3년 정도 일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고 사업전망도 밝아 보여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회사를 차릴 땐 부모님이 도와 주셨지만 3개 공장에 직물기계를 141대나 보유하게끔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줄곧 제조업만 해왔습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재테크로 돈을 번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조업만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점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해외에도 여러 군데 지사를 설치할 만큼 번성하기도 했지요. 미국에 세계적인 모자 회사를 제 고종형이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 원단을 제가 공급했지요. 유도 사범으로 가고 싶었던 미국을 사업가로서 가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외국인 바이어가 50만 달러 오더 건을 가지고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주머니를 풀지 않더군요. 폭탄주 한 순배 돌아가니 10만 달러, 또 한 차례 돌아 2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그날 밤 주머니를 모두 풀게 했습니다. 끈기와 저돌적인 대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배운 덕목이고 이게 사업의 성공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카르타 AG서 호성적 거두고
그랑프리대회 다시 열겠다”**

Q 회장 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물론 국제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게 중요 합니다.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서 리우 올림픽 노골드의 수모를 말끔히 씻어 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구요. 해마다 국내서 개최해오던 그랑프리 대회가 한국 마사회의 지원중단으로 2년째 맥이 끊겼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내서 내년엔 기필코 서울에서 그랑프리 대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유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도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술 이전에 인성교육을 앞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유도는 예의를 중시하는 운동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가운데 “유도는 하나다”라는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진도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김판수)은 현재 용인대 교수로 재직중이고 사위는 의사이다.

취미는 워킹과 등산으로 매일같이 8~10km를 걷는다. 79년 사업초기 때부터 골프를 익혀 싱글 플레이를 했으나 요즘 필드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아 실력이 많이 줄었다.

사업상 술 마실 기회가 많지만 독주보다 폭탄주(소주+맥주)를 즐겨 마신다. 한자리에서 폭탄주 10잔은 거뜰한 편이다. 🍷

2017 대표팀 유럽전지훈련

3개 대회 출전 금 5, 은 4, 동 5개 획득

남녀대표팀이 국제대회 참가를 겸한 유럽전지훈련을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남녀대표팀은 2월 11일, 12일에 파리그랜드슬램대회에 동반 출전한 뒤 남자대표팀은 2월 18,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러피언오픈로마대회에, 여자대표팀은 같은 기간 오스트리아 오베르바트에서 개최된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대회에 참가했다. 남녀대표팀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총 3개의 국제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48kg 금메달 정보경



-57kg 금메달 권유정

2017 파리그랜드슬램 국제유도대회

(2017년 2월 11~12일, 프랑스 파리)

남녀대표팀이 동반출전한 2017 파리그랜드슬램 국제유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여자 48kg이하급의 정보경. 정보경은 1회전 부전승, 2, 3회전 절반에 의한 우세승을 거둔 뒤, 준결승에서 일본의 곤도 아

미를 어깨로메치기 한판승을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몽골의 몬크바트 우란체체그를 지도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두 번째 금메달은 57kg이하급의 권유정이 차지했다. 권유정은 1회전 부전승, 2, 3회전 한판승을 거둔 뒤 준결승에서 일본의 요시다 츠카사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프랑스 선수를 모두걸기 절반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73kg이하급의 안창림은 결승에서 일본의 하시모토 소이치에게 허리채기 절반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90kg이하급의 곽동한과 여자 78kg이상급의 김민정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7 유러피언오픈로마 국제유도대회

(2017년 2월 18~19일, 이탈리아 로마)

남자대표팀이 2017 유러피언오픈로마 국제유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금메달은 남자 66kg이하급의 안바울이 차지했다. 안바울은 예선전을 업어치기 한판승, 업어치기 절반승, 지도승을 거두며 가볍게 통과한 뒤 준결승에서 러시아 선수에게 지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안바울은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메드베스 마테오를 안아조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 남자대표팀 파견자 명단

감독	금호연	코치	김영훈
선수 (11명)	-60kg	김찬녕(용인대학교), 최인혁(대구광역시청)	
	-66kg	안바울(남양주시청), 김립환(렛츠런파크)	
	-73kg	안창림(수원시청)	
	-81kg	홍석웅(용인시청)	
	-90kg	곽동한(하이원), 이재용(코레일)	
	-100kg	원종훈(경찰체육단), 이규원(용인시청)	
	+100kg	김경태(포항시청)	

※ 소속팀은 2017년 2월 기준임.

• 여자대표팀 파견자 명단

감독	배상일	코치	김정훈
선수 (9명)	-48kg	정보경(안산시청), 강유정(용인대학교)	
	-52kg	하주희(고창군청)	
	-57kg	권유정(한국체육대학교)	
	-63kg	한희주(용인대학교)	
	-70kg	유지영(경남도청)	
	-78kg	박유진(동해시청)	
	+78kg	이은주(포항시청), 김민정(렛츠런파크)	



-66kg 금메달 안바울

남자 100kg이상급의 김경태는 결승에서 일본의 오타 효가에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90kg이하급의 곽동한은 준결승에서 폴란드 선수에 패한 뒤 3위 결정전에서 일본의 무카이 쇼이치로에 상대반칙승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7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 국제유도대회
(2017년 2월 18~19일, 오스트리아 오베르바트)

여자대표팀이 2017 유러피언오픈오베르바트 국제 유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를 획득했다.

금메달은 여자 48kg이하급의 정보경과 여자 78kg 이상급의 김민정.

정보경은 결승전에서 일본의 엔도 히로미에 업어치기 절반승하며 정상에 올랐고 김민정은 결승전에서 역시 일본의 이나모리 나미에 업어치기 절반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57kg이하급의 권유정과 여자 78kg이하급의 박유진이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48kg이하급의 강유정과 여자 78kg이상급의 이은주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



+78kg 금메달 김민정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금 3, 은 4, 동 7개 획득



여자 52kg이하급 박다슬 경기 모습

대회 첫째 날

대회 첫째 날, 우리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남자 66kg이하급의 안바울(남양주시청).

안바울은 1회전 부전승을 거둔 뒤 2, 3회전에서 중국의 리 지아디와 일본의 후지사카 타로를 각각 누르기 한편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안바울은 준결승전에서 몽골의 케를렌 간달프를

지도로 누른 뒤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엘도스 주마카노르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두 번째 금메달은 73kg이하급의 안창림(수원시청).

안창림은 1회전에서 부전승을, 2, 3회전에서 카타르 선수와 몽골 선수에게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둔 뒤 준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잔사이 스마구로프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고, 단체전에서는 남자팀이 우승을, 여자팀이 3위를 차지했다.

결승상대는 몽골의 오드바아르 단다바타르. 안창림은 접전 끝에 지도를 이끌어내며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우뚝 섰다.

여자 57kg이하급의 권유정(한국체대)은 결승에서 일본의 요시다 츠카사에 허벅다리걸기 절반으로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여자 48kg이하급의 정보경(안산시청), 여자 48kg이하급의 강유정(용인대), 여자 52kg이하급의 박다솔(용인대), 여자 63kg이하급의 김지정(한국체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둘째 날

개인전 마지막 날인 대회 둘째 날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마지막 금메달의 주인공은 남자 100kg이상급의 김성민(렛츠런파크).

김성민은 1회전에서 중국 선수를 결누르기 한판으로 물리쳤고, 2회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예르잔 신케예프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김성민은 준결승전에서 키르기스스탄 선수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 일본의 시치노하 류를 결누르기 한판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100kg이하급의 김현철(국군체육부대)은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막심 라크프에 허리후리기 절반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70kg이하급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과 여자 78kg이상급의 김민정(렛츠런파크)도 각각 일본의 오노 요코와 이나모리 나미에 누르기 한판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남자 81kg이하급의 이문진(용인대)과 여자 78kg이하급의 이정운(용인대), 여자 78kg이하급의

박유진(동해시청)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마지막 날

대회 마지막 날 열린 5인조 단체전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남자팀이 우승을, 여자팀이 3위를 차지했다.

남자팀은 1회전에서 중국을 4:1로, 준결승전에서 속적 일본을 3:2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 몽골을 3: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팀은 1회전에서 몽골에 2:3으로 패한 뒤 패자 1차전에서 중국을 5:0으로, 패자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1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



여자대표팀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참관기

대한유도회와 경기 운영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남짓 되는 것 같다. 나는 자비를 들여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경기장으로 날아갔다.

글/ 김영석(스포츠타이머리 대표)

국제 대회 경기 운영과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될까?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화면에 표시된 경기 진행 현황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대회에 참가한 국가나 선수의 수로 봤을 때 국내 대회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은 수였지만,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친절하다는 생각을 했다. 진행 순서에 맞춰 선수가 입장할 때마다 장내 아나운서의 선수 소개와 게시판에 화려한 그래픽으로 선수의 등장을 알렸다.

나는 직업특성상 선수의 경기 내용이 어떻게 데이터화되고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건 데이터는 '입풋(입력 값)'이 있어야 '아웃풋(보여지는 값)'이 있는 법. 이번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특징이 있었고, 누가 이겼는지는 실시간 수집이 되고 있었으나 그게 전부였다. 지금 우리 기술 수준에 비해 살짝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여기서 나는 '국가대항 국제대회에서 보다 디테일한 분석이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경기장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일본 국가대표의 데이터 수집

나는 경기장 관중석 한구석에서 'JAPAN SPORTS COUNCIL' 이라고 등판에 적혀있는 스티플들을 찾아냈다. 이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카메라와 시스템을 동원하여 매 경기의 자료를 수집하



고 있었다. 놀랍게도 득실점 시각, 영상까지도 수집하고 있었다. 방식은 우리와 비슷한 터치스크린 방식이었다. 일본 유도는 보수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이 유도를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그들만의 정신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시스템과 분석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었다. 일본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훈련한 일본 선수들을 이긴다는 건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도의 저변 확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금메달이 나와야 유도의 저변 확대가 되는 건지, 저변 확대를 통해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인지 유도를 사랑하는 많은 선·후배님들의 생각은 다를 다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선수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게 된 동기유발은 사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었다.

선수나 지도자, 선수 보호자들은 지금도 언제 우리

선수가 경기를 할지도 모르는 경기장에서 대진표 확보전을 벌이며 기다리고 있다. 상대가 어떤 선수 인지 서로 물어봐야 한다. 사실 소속 선수들의 기록도 기억하기도 어렵다.

유도가 좋아서 시작했건, 진학 때문이건 선수, 지도자, 보호자 모두가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쾌적하고 체계화된 장소에서 맘껏 경기하고 분석하고 훈련하고 다시 겨뤄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좋은 환경 안에서 선수들은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는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태어나기도 한다. 좋은 환경, 정보, 관리.. 이러한 것들이 선수와 보호자가 유도장으로 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4차산업 혁명과 스포츠

나는 언젠가 '4차 산업 혁명과 스포츠산업' 콘퍼런스에 참가한 적이 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서 신청했다. 드론이 영상을 찍어서 시청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기장 화장실 정보를 조회하고, 3D로 시청자를 즐겁게 하는 등등... 나는 현장의 선수, 지도자에게 그걸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건 스포츠산업이 아니라 첨단 영상산업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수많은 박사님들이 첨단 장비와 비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누구도 엘리트 선수, 생활체육,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누가 주인공인가

스포츠 산업의 씨앗도, 주인공도 선수다. 유도 역시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을 때 흥행할 수 있



다. 주인공도 없는 영화를 누가 보러 오겠는가? 주인공이 흥해야 감독도 사랑받는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을 때 수반되는 수많은 부가산업이 따라온다.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지금 대한민국 유도는 다른 종목, 다른 나라에 비해 확연히 발전된 시스템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한유도회 회장님, 임직원의 판단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체계화된 정보시스템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하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2017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2017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과 함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이 열렸으며 개인전에는 남자 1,136명, 여자 419명이, 단체전에는 10개부에 총 106개팀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2017년부터 바뀐 국제유도연맹 규정에 따라 유효기술이 없어졌고, 반칙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가 늘어났다.



남자국가대표선발전

남자부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단연 돋보인 선수는 남자 66kg이하급의 안바울(남양주시청).

2016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안바울은 예선전을 상대반칙승과 결누르기 한판승으로 가볍게 통과한 뒤 준결승전에서 수원시청의 조준현에게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상대는 한국체대의 정용욱. 정용욱은 1차 선발전 5위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며 선전했지만 세계정상의 안바울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경기는 안바울의 위누르기 한판승으로 끝났다.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남자 90kg이하급의 곽동한(하이원)도 정상에 올랐다.

곽동한은 예선전에서 업어치기 절반승과 빗당겨치기 한판승, 상대반칙승을 거두고 준결승전 진출한 뒤 준결승전에서 철원군청의 김형기를 반칙

으로 가볍게 눌렀다.

곽동한은 결승에서도 코레일의 이재용에게 반칙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73kg이하급에서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안창림(수원시청)이 정상을 지켰다.

안창림은 화려한 기술을 앞세워 예선전을 결누르기 한판승, 업어치기 절반승, 업어치기되치기 한판승, 빗당겨치기 절반승으로 통과한 뒤 준결승전에서 계명대의 전지원에게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상대는 1차 선발전 결승에서 만난 인천광역시청의 서동규. 안창림은 서동규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안뒤축결기 한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60kg이하급에서는 용인대학교의 김찬녕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찬녕은 예선전을 안뒤축결기 절반승, 허리후리

기 절반승, 발뒤축걸기 절반승으로 가볍게 통과한 뒤 결승에서 같은 대학의 전승범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두고 이 체급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남자 81kg이하급에서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였던 이승수(여수시청)가 용인대의 이문진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남자 100kg이하급에서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2

위를 차지했던 국군체육부대의 김현철이 경찰체육단의 김이현을 허리껴치기되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100kg이상급에서는 렛츠런파크의 김성민이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우승자인 포항시청의 김경태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국가대표선발전

여자부에서는 신예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자 48kg이하급에서는 강유정(용인대)이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안산시청)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강유정은 예선전 3경기를 모두 누르기 한판승으로 장식한 뒤 결승에서 정보경을 안뒤축걸기 한판으로 누르고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이어 우승을 차지, 정보경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했다.

여자 57kg이하급의 권유정(한국체대)도 동해시청의 지윤서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우승자인 권유정은 4번의 예선전을 안아조르기 한판승, 빗당겨치기 절반승, 발다리걸기 한판승으로 통과한 뒤 준결승전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김새리를 업어치기되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권유정은 결승에서 지윤서를 팔가로누워끼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63kg이하급에서는 한국체대의 김지정이 정상에 올랐다.

김지정은 2회전에서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우승자인 명지혜(부산북구청)를 상대반칙으로 누르고 고비를 넘긴 뒤 3회전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준결승전을 모두걸기 한판으로 통과했다.

김지정은 결승에서 인천광역시청의 최은솔을 골드스코어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지도승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 이 체급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여자 70kg이하급에서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였던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김성연이 정상에 올랐다. 김성연은 1회전을 안아돌리기 한판으로, 2회전을 발뒤축걸기 절반으로 통과한 뒤 준결승전에서 용인대의 류도희를 결누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성연은 결승에서 경남도청의 유지영 선수에게 기권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52kg이하급에서는 용인대의 박다솔이 동해시청의 권애림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여자 78kg이하급에서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 2위를 했던 이정운(용인대)이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였던 박유진(동해시청)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78kg이상급의 김민정(렛츠런파크)은 준결승전에서 동해시청의 김지윤을 반칙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뒤 결승에서 용인대의 한미진을 반칙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2017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 기간 : 2017년 3월 13~17일 • 장소 : 순천, 팔마체육관

개인전

⋮

• 남자대표선발전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5위			
-60kg		김찬녕 (용인대)	전승범 (용인대)	이하림 (용인대)	임은준 (경기대)	김재현 (한체대)	박선주 (동의대)	황태원 (용인시청)	김효준 (경찰체육단)
-66kg		안바울 (남양주시청)	정용욱 (한체대)	조준현 (수원시청)	신호 (용인대)	김동호 (경운대)	변종웅 (용인대)	김휘건 (한체대)	김효식 (청주대)
-73kg		안창림 (수원시청)	서동규 (인천광역시청)	전지원 (계명대)	안준성 (용인대)	이정민 (독도스포츠타)	강현철 (용인대)	김영주 (경남도청)	최준근 (광주광역시체육회)
-81kg		이승수 (여수시청)	이문진 (용인대)	홍석웅 (용인시청)	이성호 (수원시청)	이영준 (코레일)	이위진 (용인대)	이재형 (포항시청)	김민규 (동의대)
-90kg		곽동한 (하이원유도)	이재용 (경철체육단)	김형기 (철원군청)	김태호 (용인대)	이유한 (용인대)	왕기춘 (충북유도회)	정원준 (철원군청)	고민혁 (용인대)
-100kg		김현철 (국군체육부대)	김이현 (경찰체육단)	이민혁 (부산시청)	홍진수 (용인대)	황민호 (경찰체육단)	김경모 (국군체육부대)	허준영 (국군체육부대)	이현용 (용인대)
+100kg		김성민 (벡스런파크)	김경태 (포항시청)	지근배 (남양주시청)	주영서 (용인대)	류현석 (양평군청)	강진수 (독도스포츠타)	정병철 (여수시청)	김도형 (경남도청)

• 여자대표선발전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5위			
-48kg		강유정 (용인대)	정보경 (안산시청)	장지영 (제주특별자치도청)	박은이 (한체대)	손선혜 (충북도청)	이혜경 (동해시청)	오영지 (용인대)	배슬비 (대구광역시청)
-52kg		박다솔 (용인대)	권애림 (동해시청)	김미리 (제주특별자치도청)	고하림 (전라남도체육회)	이근혜 (용인대)	장예진 (용인대)	김재령 (한체대)	정정윤 (충북도청)
-57kg		권유정 (한체대)	지용서 (동해시청)	김새리 (광주도시철도공사)	이재란 (용인대)	김미래 (용인대)	남은영 (용인대)	김혜빈 (마산대)	차유미 (대전광역시청)
-63kg		김지정 (한체대)	최은솔 (인천광역시청)	상민경 (충북도청)	김슬기 (동해시청)	김현지 (용인대)	이주연 (한체대)	박혜진 (대전광역시서구청)	박다운 (용인대)
-70kg		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	유지영 (경남도청)	정혜진 (안산시청)	류도희 (용인대)	송세령 (용인대)	김은정 (고창군청)	남아림 (성동구청)	유혜리 (경기대)
-78kg		이정윤 (용인대)	박유진 (동해시청)	황예슬 (포항시청)	박은지 (충북도청)	성초롱 (대전광역시서구청)	임정수 (고창군청)	김별이 (포항시청)	홍은영 (경남도청)
+78kg		김민정 (벡스런파크)	한미진 (용인대)	이은주 (제주특별자치도청)	김지윤 (동해시청)	박다운 (대전광역시서구청)	김태연 (경기대)	신지영 (동아대)	조아라 (충북도청)

• 남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이동욱(명덕초)	김용민(가남초)	김도윤(서울응암초)	김건우(석수초)
-42kg	김수현(밀성초)	전민성(철원초)	김은도(본촌초)	이진환(서울송중초)
-48kg	신민재(사북초)	정지운(고령초)	윤건우(서울잠천초)	차윤대(홍덕초)
-54kg	김민준(대구태현초)	박성현(남양주금곡)	추승주(통영초)	김민수(서울송중초)
-60kg	김동휘(청계초)	한승훈(남양주금곡)	권한빈(홍덕초)	허정재(보목초)
-66kg	김민재(밀성초)	김민준(철원초)	엄요환(육천장야초)	서상윤(남원용성초)
+66kg	김성현(석수초)	박민찬(김해활천초)	김태윤(서울응암초)	모원준(신철원초)

• 여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신유미(보목초)	김지나(김해활천초)	이혜원(소룡초)	박혜인(대전천동초)
-40kg	황시연(대구성동초)	송가인(신금초)	신연서(대전천동초)	권서애(오정초)
-44kg	박하연(이리부천초)	최은채(미포초)	정혜영(철원초)	박성서(본촌초)
-48kg	김남주(덕계초)	박혜린(순천신흥초)	김세은(외산초)	남유리(괴정초)
-52kg	배희진(삼양초)	배시은(청계초)	최수진(대남초)	이현정(사북초)
+52kg	이혜빈(덕계초)	김초희(광양마동초)	최재영(순천신흥초)	김애은(외산초)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이현석(전북중)	천현준(통영중앙중)	김대신(안락중)	김희수(위산중)
-48kg	박민우(아음중)	김형빈(순천신흥중)	서영석(제주사대부중)	최재우(안락중)
-51kg	박진영(부산체중)	유용세(광주체중)	김민규(통영중앙중)	김현민(아음중)
-55kg	주성민(순천신흥중)	이지형(삼성중)	신은규(통영중앙중)	박정우(광주체중)
-60kg	김예솔(순천신흥중)	김형은(전북중)	이명서(대전체중)	정동환(삼성중)
-66kg	전도원(성남중)	김대현(덕원중)	정선욱(전북중)	선유비(안락중)
-73kg	구형준(경민중)	정재훈(부평서중)	이주원(보성중)	문지성(광주체중)
-81kg	김예찬(보성중)	최성혁(삼성중)	이도윤(경민중)	이동현(일산중)
-90kg	이지원(경기체중)	김민우(보성중)	김형석(전북중)	송재우(덕원중)
+90kg	서동규(보성중)	정재호(원당중)	황영호(덕원중)	신태양(부평서중)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2kg	한지원(원당중)	김민지(광양마동중)	-	-
-45kg	김수연(광양마동중)	김유진(연성중)	안채연(원당중)	-
-48kg	장세윤(서울체중)	박나연(남해여중)	이분(한라중)	문희진(안락중)
-52kg	이지원(통영중앙중)	이원정(광양마동중)	상현지(부산체중)	김인영(위산중)
-57kg	최정아(영선중)	양지민(통영중앙중)	김예경(물금동아중)	김지수(서울체중)
-63kg	천혜진(경기체중)	유경효(청라중)	최소희(진주여중)	정유리(아음중)
-70kg	김민주(광주체중)	김유빈(연성중)	방민서(안락중)	김유경(진주여중)
+70kg	박성은(광주체중)	이수지(육천여중)	정유비(전북중)	강윤지(제주동여중)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5kg	박찬혁(광주체고)	심규혁(비봉고)	김준현(성남고)	백세웅(목포고)
-60kg	황일태(송도고)	하정우(경민고)	진재호(우석고)	서보민(해동고)
-66kg	이진규(신철원고)	한재광(우석고)	장민수(삼천포중앙고)	황길호(진량고)
-73kg	최훈(경민고)	이상준(주문진고)	이종민(순천공고)	이창환(경남체고)
-81kg	이남훈(주산산업고)	도형준(해동고)	전영빈(보석고)	김장운(계성고)
-90kg	정인성(삼천포중앙고)	김태욱(보성고)	한지훈(해동고)	김준년(성남고)
-100kg	김경환(송도고)	심재우(보성고)	박충봉(대전체고)	강태현(순천공고)
+100kg	김두용(계성고)	배세진(비봉고)	성준협(주문진고)	정준용(김천중앙고)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박소영(충북체고)	한수경(울산생과고)	유수희(광영여고)	황예진(광영여고)
-48kg	유주희(경기체고)	정경은(광주체고)	황수련(영선고)	박지영(울산스과고)
-52kg	이라겸(충북체고)	김가연(영선고)	주재희(서울체고)	조윤의(광주체고)
-57kg	김주희(충북체고)	채정아(서울체고)	강한별(충북체고)	이수빈(경민IT고)
-63kg	이고은(전북체고)	최아름(부산체고)	박지우(경기체고)	김다운(충남체고)
-70kg	임우주(경기체고)	김근혜(대전체고)	유예진(주산산고)	김은솔(경민IT고)
-78kg	김아현(여수정과고)	김주윤(울산생과고)	박소연(충북체고)	정나은(부산체고)
+78kg	임보영(경민IT고)	박세리(광영여고)	김다혜(여수정과고)	김한별(서울체고)

단체전

:

종별 \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초부	홍덕초	신철원초	서울응암초	가산초등학교
여초부	순천신흥초	-	-	-
남중부	전북중	삼성중	비봉중	원당중
여중부	영선중	광주체중	광양마동중	울산스포츠과학중
남고부	보성고	비봉고	해동고	경민고
여고부	경민IT고	울산생과고	광영여고	부산체고
남대부	용인대	한양대	세한대	청주대
여대부	용인대	한국체대	-	-
남일반부	경찰체육단	국군체육부대	경남도청	포항시청
여일반부	동해시청	포항시청	대전광역시서구청	충북도청



청풍기 유도 10년동안 경제효과 150억

청풍기 전국 유도 대회는 2008년 '1회 청풍기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첫 대회는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치러졌고 3회 대회까지는 청주체육관에서, 4~5회 대회는 충주에서 치러졌다. 당시 참가선수만 1,500여 명에 이를 만큼 대회 규모가 크다보니 충주시에서 욕심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주의 경우 체육관은 물론 숙박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결국 이후 대회부터는 다시 청주에서 계속 치러왔다.

청풍기대회가 시작된 것은 국제대회인 직지컵 유도대회의 영향이 컸다. 직지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청주유도회관과 이로 인해 청주로 전지훈련도 많이 오면서 청주를 유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대회를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의기투합하게 된 것이다. 충북도에서도 대회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준 것.

청풍기대회가 전환점을 맞은 것은 2014년 7회 대회때부터. 그동안 도에서만 지원된 1억 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러왔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더욱 큰 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7회 대회부터는 초·중·고등부 외에 대학부와 일반부, 동아리부 등 그 참가 범위가 넓어졌다. 참가인원도 기존 1,5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크게 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대회기간 선수와 지도자, 보호자, 유도단체 관계자 등 전국에서 6,000여 명이 청주를 방문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대회장 인근은 물론 숙소가 몰려 있는 금천·내덕·용암·울량동 인근 식당들도 많은 손님들이 몰리면서 일부 식당은 준비한 식재료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방 예약을 끝낸 대회장 인근 숙박업소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다. 충북유도회는 10년간 대회를 치르며 약 6만여 명이 충북을 방문, 약 150억~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회가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치러져온 데는 대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하재은 충북유도회 전무이사의 숨은 노력도 컸다.

하 전무는 “충북도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충북 유도인들의 단합된 힘이 청풍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것 같다”며 “청풍기대회가 앞으로 국제대회 등 더욱 크고 의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10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17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가 6월 23일부터 5일동안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 1,949명, 단체전 130개팀 810명, 대학 동아리팀 205명 등 총 2,964명이 출전, 저마다 연마한 기량을 뽐내며 열전을 펼쳤다. 개회식에는 김진도 대한유도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양희 도의회 의장, 이승훈 청주시장, 황영호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각 시도 유도회장 등 수천여명의 관중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 각 시도의 체육 관계자들과 지역 언론사들이 대거 몰려와 자기 고장 선수들의 활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상무 국군체육부대



세한대

일반부

국군체육부대가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여수시청을 4-1로 꺾었다. 1회전에서 한국철도공사를 5-0, 준결승에서 경남도청을 4-1로 물리친 국군체육부대는 결승전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최강자에 등극했다. 개인전에서도 국군체육부대는 60kg이하급 박충렬과 81kg이하급 채성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단체전에선 1회전에서 안산시청에 기권승을 거둔 충북도청이 준결승에서 고창군청을 상대로 3대2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에서 경남도청을 4대1로 제압하고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전에서는 충북도청(52kg이하급 정정윤 57kg이하급 차민지)과 경남도청(63kg이하급 박지윤, 70kg이하급 유지영)이 사이좋게 2체급씩을 석권했다.

대학부

남자 단체전에서 세한대학교(하종웅 · 이동윤 · 김성훈 · 황성수 · 양창일 · 성종진)가 부산 동의대를 3대 2로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개인전에서는 한체대가 60kg이하급 김재현, 81kg이하급 이정민, 영남대가 66kg이하급 강성환, 100kg이하급 최민철 등 2체급을 휩쓸었다.

단체전 우승팀 세한대는 90kg이하급 하중웅만이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여대부 단체 우승은 경기대에 돌아갔다.

개인전은 한국체대가 4체급, 용인대가 3체급을 나누어 가졌다. 48kg이하급 진경희, 63kg이하급 이주연, 70kg이하급 김혜미, 78kg이하급 문다슬은 한국체육대 소속이고 52kg이하급 이동현, 57kg이하급 남은영, 78kg이상급 배혜빈은 용인대 선수이다.



명석고



제주 금3개 획득

고등부

12개팀이 참가한 남고부 단체전에서 명석고가 돌풍을 일으키며 정상을 차지했다.

명석고는 1회전에서 전통의 강호 청석고를 누르고 8강에 올라 부산체고와 충남체고를 차례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신홍 김천 중앙고를 4-3으로 힘겹게 따돌렸다.

개인전에선 전통의 강호 보성고가 66kg이하급 이은결, 81kg이하급 김영승, 100kg이상급 김민종 3명이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고부 단체전은 울산 생과고에 돌아갔다. 개인전도 전체급 우승자 소속팀이 모두 달랐다.

중등부

동명중과 영선중이 남녀 중등부 단체전 우승을 거머 쥐었다. 개인전의 경우 남중부는 영동중, 성남중, 원광중, 삼성중 등 4개학교가 금메달 2개씩을 사이좋게 나누었고 여중부는 영선중이 2개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가져갔다.

48kg이하급 김찬욱, 51kg이하급 조성호(이상 영동중) 60kg이하급 이도협, 66kg이하급 진도원(이상 성남중) 73kg이하급 배성민, 90kg이하급 옥원준(이상 원광중) 55kg이하급 이지형, 81kg이하급

최성혁(이상 삼선중) 57kg이하급 최정아 70kg이하급 정수영(이상 영선중)이 영광의 주인공들이다.

초등부

흥덕초등학교와 덕계초등학교가 나란히 남녀 초등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은 제주의 꿈나무들이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충남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오상우(제주서초)가 42kg이하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우는 결승전에서 조성모(청계초)에 허리후리기 기술로 절반승을 따냈다. 64강 부전승을 시작으로 8강과 4강전을 한판승과 절반승으로 각각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세림(납읍초)도 66kg이하급에서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한판승으로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등극했다. 김세림은 결승에서 강지재(흥덕초)를 맞아 업어치기로 누르며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2회 순천만국가정원컵 우승자인 신유미(보목초)는 여초부 36kg이하급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16강부터 4강까지 내리 누르기 한판승으로 장식했다. 신유미는 결승에서 이유진(석수초)을 맞아 지도를 이끌어내며 승리했다. 🏆

• 제10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개인전 결과 •

급	순위	1위			
		1위	2위	3위	
남자부	-32kg	이은강 (서울음암초)	이은를 (서울음암초)	강용서 (장양초)	김은수 (다문초)
	-36kg	박기람 (장양초)	임강현 (부안초)	전재민 (장양초)	김도윤 (서울음암초)
	-42kg	오상우 (제주서초)	조성모 (청계초)	이동욱 (명덕초)	배범준 (대구태현초)
	-48kg	이진환 (서울송중초)	박준수 (과천문원초)	김준호 (영광중앙초)	윤건우 (서울잠천초)
	-54kg	김민수 (서울송중초)	박지민 (서울음암초)	김민준 (대구태현초)	박은상 (도천초)
	-60kg	박성현 (남양주금곡초)	차운태 (흥덕초)	한승훈 (남양주금곡초)	김세진 (외도초)
	-66kg	김세림 (납읍초)	강지재 (흥덕초)	강 호 (동남초)	엄요환 (옥천장야초)
	+66kg	김성현 (석수초)	송재서 (동남초)	김윤건 (강정초)	오민석 (용화초)

급	순위	1위			
		1위	2위	3위	
여자부	-36kg	신유미 (보목초)	이유진 (석수초)	권나라 (간성초)	유슬기 (장양초)
	-40kg	황시연 (대구성동초)	김연서 (석수초)	윤우미 (인천신현북초)	신민서 (신금초)
	-44kg	전다연 (대구성동초)	이인서 (장양초)	김민선 (양학초)	문려원 (술샘초)
	-48kg	김남주 (떡계초)	강나은 (부안초)	조한솔 (인천삼산초)	남유리 (괴정초)
	-52kg	배시은 (청계초)	최수진 (대남초)	박승민 (소룡초)	오하람 (보남초)
	+52kg	이혜빈 (떡계초)	김연주 (외도초)	최혜원 (인천삼산초)	고은비 (금호초)

급	순위	1위			
		1위	2위	3위	
남자부	-45kg	박민우 (아음중)	이현승 (태장중)	김 진 (신철원중)	박태연 (원광중)
	-48kg	김찬욱 (영동중)	윤효성 (신현중)	김윤영 (삼천포제일중)	박민섭 (대전대성중)
	-51kg	조성호 (영동중)	김연우 (신현중)	송광호 (연성중)	김민수 (송도중)
	-55kg	이지형 (삼성중)	박진영 (부산체고)	유경태 (아음중)	김어진 (후평중)
	-60kg	이도협 (성남중)	이명훈 (대전체중)	우정영 (아음중)	김동현 (덕원중)
	-66kg	전도원 (성남중)	장유빈 (신철원중)	김성현 (도개중)	이준환 (관산중)
	-73kg	배성민 (원광중)	이환희 (신철원중)	김문수 (서울체중)	문현준 (도개중)
	-81kg	최상혁 (삼성중)	김윤우 (전북중)	신한중 (물금동아중)	김태영 (동지중)
	-90kg	육원준 (원광중)	안영표 (비봉중)	최도훈 (하계중)	최진영 (진량중)
	+90kg	서동규 (보성중)	장민혁 (관산중)	백두산 (아음중)	정태윤 (동지중)

급	순위	1위			
		1위	2위	3위	
여자부	-42kg	유예슬 (북원여중)	서미진 (무곡중)	김담이 (온양한울중)	한지원 (원당중)
	-45kg	안채연 (원당중)	김유진 (연성중)	김성은 (청라중)	김민정 (위미중)
	-48kg	김보민 (금곡중)	이 본 (한라중)	김예지 (도개중)	정주연 (경복체중)
	-52kg	장세윤 (서울체중)	정나리 (안락중)	김서연 (청라중)	김현아 (북원여중)
	-57kg	최정아 (연성중)	강민지 (제주동여중)	윤예빈 (신원중)	배경은 (금곡중)
	-63kg	전혜진 (경기체중)	정유라 (아음중)	이지연 (관산중)	우효경 (청라중)
	-70kg	정수영 (영선중)	김세현 (동지여중)	오지연 (성산중)	김소영 (울산스파중)
	+70kg	장유경 (진량중)	이윤선 (금곡중)	노연희 (덕천여중)	김지영 (관산중)

급	순위	1위			
		1위	2위	3위	
남자부	-55kg	심규혁 (비봉고)	전승우 (경기체고)	정시용 (김천중앙고)	전민규 (비봉고)
	-60kg	김명진 (성남고)	함우식 (주문진고)	송우용 (울산생과고)	박민제 (충남체고)
	-66kg	이은결 (보성고)	문성범 (주문진고)	김지훈 (보성고)	김민영 (순천공업고)
	-73kg	이상준 (주문진고)	장선우 (주문진고)	손재형 (덕원고)	김성준 (삼천포중앙고)
	-81kg	김영송 (보성고)	이재용 (보성고)	원종민 (원광고)	도형준 (해동고)
	-90kg	서재현 (청석고)	정다빈 (금호공고)	박민제 (비봉고)	최명준 (울산스파고)
	-100kg	한지훈 (해동고)	함정재 (동지고)	김병수 (비봉고)	박동욱 (김천중앙고)
	+100kg	김민중 (보성고)	배세진 (비봉고)	정준용 (김천중앙고)	김상경 (동지고)

• 제10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개인전 결과 •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여권부	
-45kg		황예진 (광명여고)	라희원 (영선고)	박소영 (충북체고)		-
-48kg		황수연 (영선고)	허승림 (서울체고)	김지연 (대전체고)		박예진 (서울체고)
-52kg		장윤진 (서울체고)	김수민 (충북체육고)	김한솔 (서울체고)		김서현 (서울체고)
-57kg		김다은 (충남체고)	서민영 (인천체육고)	권수정 (인천체고)		김민지 (서울체고)
-63kg		신채원 (대구체고)	최지원 (도개고)	김미수 (부산체고)		김윤 (부산체고)
-70kg		유예진 (주산산고)	이주영 (용문고)	이아영 (경기체고)		이가은 (충북체고)
-78kg		김아현 (여수정과고)	김유진 (영선고)	김소리 (영서고)		박소연 (충북체고)
+78kg		김하윤 (삼정고)	김다혜 (여수정과고)	정수빈 (주산산고)		박샛별 (대구체고)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남권부	
-60kg		김재현 (한체대)	김광현 (영남대)	장석진 (세한대)		장성진 (계명대)
-66kg		강성환 (영남대)	김영웅 (웅인대)	강영욱 (한체대)		박준영 (영남대)
-73kg		김경훈 (웅인대)	김준영 (한체대)	문석호 (웅인대)		김찬우 (웅인대)
-81kg		이정민 (한체대)	이준성 (한체대)	이성근 (웅인대)		김영재 (웅인대)
-90kg		하종웅 (세한대)	고민혁 (웅인대)	조석현 (웅인대)		김용일 (한양대)
-100kg		최만철 (영남대)	안재원 (한체대)	김노현 (한양대)		송진우 (청주대)
+100kg		윤재구 (한체대)	오성찬 (경운대)	정의혁 (목원대)		조성민 (인하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여권부	
-48kg		진경희 (한체대)	박은이 (한체대)	오영지 (웅인대)		-
-52kg		이동현 (웅인대)	김이현 (경기대)	문예지 (마산대)		이근혜 (웅인대)
-57kg		남은영 (웅인대)	김재령 (한체대)	이현주 (웅인대)		김혜빈 (마산대)
-63kg		이주연 (한체대)	공서영 (웅인대)	최지우 (한체대)		박민희 (한체대)
-70kg		김혜미 (한체대)	류예담 (한체대)	유혜리 (경기대)		김성은 (한체대)
-78kg		문다솔 (한체대)	홍진주 (한체대)	이예원 (한체대)		채윤지 (한체대)
+78kg		배혜빈 (웅인대)	김예슬 (웅인대)	신지영 (동아대)		김태연 (경기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남권부	
-60kg		박총렬 (국군체육부대)	황태원 (웅인시청)	곽기철 (양평군청)		심계홍 (웅인시청)
-66kg		김효준 (경찰체육단)	장진민 (KORAIL 코레일)	김정훈 (여수시청)		조준영 (부산광역시청)
-73kg		한장수 (양평군청)	김선명 (대구광역시청)	엄현준 (독스스포츠탄)		이진성 (여주시청)
-81kg		채성희 (국군체육부대)	송민기 (경찰체육단)	정해주 (경찰체육단)		이재용 (KORAIL 코레일)
-90kg		홍석웅 (웅인시청)	전 찬 (국군체육부대)	한경진 (국군체육부대)		이재용 (KORAIL 코레일)
-100kg		서동주 (인천광역시청)	김민성 (KORAIL 코레일)	김재윤 (렛츠런파크)		김병훈 (광명시체육회)
+100kg		김성민 (렛츠런파크)	김도형 (경남도청)	정지원 (경남도청)		최민영 (KORAIL 코레일)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여권부	
-48kg		이혜경 (광주도시철도공사)	최수희 (성동구청)	이세영 (인천광역시청)		배슬비 (대구광역시청)
-52kg		정정윤 (충북도청)	한기쁨 (부산북구청)	이은혜 (인천광역시청)		조아라 (고창군청)
-57kg		차민지 (충북도청)	서수빈 (성동구청)	서하나 (전남체육회)		성지은 (부산북구청)
-63kg		박지윤 (경남도청)	차세랑 (제주특별자치도청)	명지혜 (부산북구청)		윤여은 (철원군청)
-70kg		유지영 (경남도청)	남아림 (성동구청)	최수진 (철원군청)		이지수 (동해시청)
-78kg		황예슬 (포항시청)	박은지 (충북도청)	임정수 (고창군청)		강지수 (성동구청)
+78kg		김민정 (렛츠런파크)	이은주 (제주특별자치도청)	엄다현 (안산시청)		김지윤 (동해시청)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유도

각 시도를 대표하는 초등부, 중등부 선수들이 출전하는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도종목 경기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남초부, 여초부, 남중부, 여중부 개인전에 343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경기도가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강원도(금메달 4개)와 서울특별시(금메달 3개)를 물리치고 유도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초부

남초부에는 5체급에서 75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강원이 3체급에서 금메달을 가져갔고, 경북과 경기도가 한 체급씩 금메달을 획득했다. 35kg이하급에서는 강원 이규민이 경남의 이동욱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규민은 네 번의 경기 중 세 번을 한판으로 장식, 남초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43kg이하급에서는 경북의 이현빈이 경기의 조성모를 반칙승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53kg이하급에서는 경기의 박성현이 대구의 김민준을 상대 지도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65kg이하급에서는 강원 김민준이 경기의 김민재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65kg이상급의 모원준(강원)은 경기의 김성현을 가로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여초부

여초부에는 4체급에서 56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경기도가 두 체급에서, 대구와 충북이 각각 한 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36kg이하급에서는 대구의 황시연이 인천의 윤우미를 허벅다리되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48kg이하급의 김남주(경기)는 제주의 오하람을 가로누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남주는 네 경기를 모두 누르기 한판으로 장식하며 여초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57kg이하급에서는 충북의 배희진이 대구의 손예림을 안다리결기 한판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57kg이상급에서는 경기의 이혜빈이 전남의 김초희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

남중부에는 7체급에서 111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인천과 강원도 두 체급에서 정상에 올랐고, 대구와 서울, 전북이 각각 한 체급에서 금메달을 가져갔다.

55kg이하급에서는 강원 이재형이 부산의 이지형을 상대지도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60kg이하급에서는 대구의 김동현이 강원 장유빈을 어깨로메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66kg이하급에서는 서울의 전도원이 경기의 이준환을 상대반칙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도원은 네 번의 경기 중 세 번을 한판으로 장식하며 남중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73kg이하급에서는 인천의 정재훈이 충남의 모영석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81kg이하급의 김우군(강원)은 경기의 이승환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90kg이하급의 옥원준(전북)은 충남의 옥견호를 안다리되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90kg이상급의 김주형(인천)은 서울의 서동규를 발다리되치기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여중부에는 7체급에서 101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경기가 세 체급에서 금메달을 가져갔고, 서울이 두 체급에서, 경남과 경북이 각각 한 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45kg이하급에서는 경남의 이예람이 충남의 안채연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예람은 네 경기를 모두 한판으로 장식하며 여중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48kg이하급에서는 서울의 장세윤이 전남의 김보경을 허벅다리걸기 절반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52kg이하급에서는 경기의 이아름이 강원의 김현아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7kg이하급의 허슬미(경기)는 대구의 김지예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고, 63kg이하급의 정승아(경기)는 강원 김은아를 허벅다리걸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70kg이하급에서는 서울의 박세은이 전북의 고가영에 업어치기 절반승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70kg 이상급에서는 경북의 장유경이 경기의 김지영을 허벅다리되치기 절반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남초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35kg		이규민(강원)	이동욱(경남)	최우진(경북)
-43kg		이현빈(경북)	조성모(경기)	김수현(경남)
-53kg		박성현(경기)	김민준(대구)	류의건(경남)
-65kg		김민준(강원)	김민재(경남)	김홍서(대구)
+65kg		모원준(강원)	김성현(경기)	송재서(제주)

※ 최우수선수 : 이규민(강원)

여초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36kg		황시연(대구)	윤우미(인천)	정수아(서울)
-48kg		김남주(경기)	오하람(제주)	남유리(부산)
-57kg		배희진(충북)	손예린(대구)	배시은(경기)
+57kg		이혜빈(경기)	김초희(전남)	김예은(충남)

※ 최우수선수 : 김남주(경기)

남중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55kg		이재형(강원)	이지형(부산)	김태윤(서울)
-60kg		김동현(대구)	장유빈(강원)	김태경(충남)
-66kg		전도원(서울)	이준환(경기)	정선욱(전북)
-73kg		정재훈(인천)	모영석(충남)	최선준(부산)
-81kg		김우곤(강원)	이승환(경기)	김태영(경북)
-90kg		육원준(전북)	육건호(충남)	최진영(경북)
+90kg		김주형(인천)	서동규(서울)	김태환(울산)

※ 최우수선수 : 전도원(서울)

여중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5kg		이예람(경남)	안채연(충남)	김소현(강원)
-48kg		장세윤(서울)	김보경(전남)	김우정(인천)
-52kg		이아름(경기)	김현아(강원)	이지원(경남)
-57kg		허슬미(경기)	김지예(대구)	최정아(전북)
-63kg		정승아(경기)	김은아(강원)	김나현(서울)
-70kg		박세은(서울)	고가영(전북)	노예슬(경기)
+70kg		장유경(경북)	김지영(경기)	김다윤(경남)

※ 최우수선수 : 이예람(경남)

엄살 금지로 이룬 전국 최강 ‘부산 유도인의 산실’ 하단 유심유도관

부산 사하구청 인근 당리동 변화가. 한 4층건물 2층에 양품점, 미용실 등이 즐비한 이 부근 상가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도복을 입은 유도인을 배경 그림으로 한 남성적 간판이 유난히 눈에 띈다. ‘하단 유심유도관’. 건물 입구에 들어서 도장이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다 보니 계단 양 옆 선반에 각종 트로피와 상패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첫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유도관으로 느껴졌다.

글/ 박경영 기자(부산 시빅뉴스 취재부) 사진/정혜리 기자(부산 시빅뉴스 사진부)





‘관원 120명’, 하루 4차례 수업

하단 유심유도관은 1995년 하단유도관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유현철 관장이 하단유도관을 인수, 유심유도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원들을 지도한 지는 9년째다. 인수할 당시에는 관원이 3명뿐이었으며 유도관 상태도 열악했다고 한다. 유 관장은 인수 후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정신으로 3개월 동안 새벽 식자재 배달,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유도관 개선에 힘썼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관원 30명을 돌파했다.

현재 관원은 120여 명. 국내에서는 유도가 태권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유심유도관은 예외다. 100명 이상 관원을 보유한 몇 안되는 유도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기자가 이 유도관을 방문했을 때도 십수명의 관원들이 들어치기, 엮어치기, 메치기 훈련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체력단련과 체육계 대학 진학, 혹은 유도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꿈나무들이 많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유심유도관은 취미생활은 물론, 선수 및 유도 엘리트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상 실적도 화려했다. 지난 1월 동해시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서 단체전 3개부문서 우승한 것을 비롯 개인전서도 무려 7체급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유심 유도관은 오후 3시 30분,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 수업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 7시 30분, 마지막 9시 30분 수업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수업 후 더 운동하고자하는 관원들을 위해 유도관을 오후 11시 20분에 마감한다고 한다.

오후 7시, 수업이 진행되기 30분 전이다.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등 10여명의 관원들이 줄이어 도장으로 들어왔다. 바르고 강직한 인품을 수양하는 유도인답게 그들이 입장하면서 나누는 인사도 범상치 않았다. 절도 있고 예의가 몸에 밴 듯했다. 도복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유도 수업에 앞서 각자 몸을 풀고 담소를 나누는 등 그들에게서 흐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속에서도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남녀 탈의실에 운동기구 및 샤워장도 갖춰

유도장에는 남녀 탈의실과 각종 운동 기구들이 구비돼 있다.

유도장 바닥은 전체가 폭신한 매트로 덮여 있어 강도 높은 유도 기술을 구사하더라도 큰 부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보였다. 유도장 한 편에는 운동 기구가 배치돼 있어 개인적으로 체력 보강을 위해 운동하는 관원들도 몇몇 보였다. 원래는 상담실이 위치해 있었으나 관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동기구를 들였다고 한다. 유도장을 나와2층으로 향하면

화장실과 함께 샤워실도 마련되어 있다. 관원들이 땀범벅이 돼 찻찻한 기분으로 하원할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유도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난 후 샤워하고 개운하게 집으로 향할 수 있겠다.

유도 수업이 시작되자 다소 엄숙하나,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준비운동부터 본격적인 운동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중력 있게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한 사범은 “더 강하게! 더 당겨!”를 외치며 한 학생을 강도 높게 지도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도 힘든 기색 없이 절도 있게 사범의 지도에 응했다. 유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식사를 피우는 관원들을 볼 수가 없었다. 유현철 관장은 그 비결로 ‘금지어’를 꼽았다. 유도관 내에서는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왜요” 등 부정적인 단어를 금지했다고 한다.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강한 책임감

유현철 관장은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그에게는 그의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다. 그는 “그 학생들의 학교에서도 “그 아이는 안된다”며 포기하라 했다. 하지만 학교를 여러 번 찾아가고, 선



유 관장은 유도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시간 때우기용 운동이 아닌,
땀 흘리며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보람 있는 유도관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심유도관에는 유현철 관장의 유도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깃들어 있다.



생님들께 잘 이끌어 볼 테니 도와달라 부탁했었다. 지금은 대학도 잘 가고 스승의 날에도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유 관장은 “그렇게 잡아주었던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유도관 소개를 받بت고 나서 해주신 덕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관장은 유도를 인지도 높은 다른 종목들처럼 한국 사회에 보급하고자 동기들과 함께 교류하며 유심유도관을 설립했다. 그는 유심유도관을 인수할 당시, 3명밖에 되지 않는 관원과 광장히 시설이 열악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오랫동안 운동해온 근성에서 나온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에 사하구, 해운대구, 서구를 비롯해 총 7개의 유심유도관이 설립돼 있다.

“유도 하면 키 안 크다고요?

내 키가 190cm 랍니다”

주변에서 보면 흔히들 ‘키가 안 크다’거나 ‘귀 모양이 이상해진다’는 등 유도에 관한 편견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유관장은 “내 키가 190cm가 넘는다”며 편견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유 관장은 “그런 오해들을 잘 풀어내 유도와 생활 체육을 보급하고 싶다”며 유도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시간 때우기용 운동이 아닌 땀 흘리며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보람 있는 유도관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심유도관에는 유현철 관장의 유도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깃들어 있다. 유심유도관이 훗날 유도계의 한 획을 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 ●



NEWS



2017 정기대의원총회(2월 2일)

2017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2월 2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 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2016년도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심의사항으로는 2016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이 있었고,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제63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정보경 경기부문 우수상, 이원희 지도부문 우수상 수상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왼쪽)으로부터 우수상을 받는 정보경(오른쪽)

제63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이 2월 22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안산시청)이 경기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5명이 체육상을 수상했다.

- ▶ 경기부문(우수) - 정보경(안산시청)
- ▶ 지도부문(우수) - 이원희(용인대 교수)
- ▶ 심판부문(장려) - 조민선(한국체대 교수)
- ▶ 학교체육부문(장려) - 배형정(서울체고 감독)
- ▶ 연구부문(장려) - 김판수(용인대 교수)

대한유도회 제37대 집행부 2차 이사회



제37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 개최

제37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가 재적임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1일 오후 2시, 강원도 동해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 보고,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보고,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파견, 기타사업 보고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심의사항으로는 2016년도 표창대상자 선정의 건, 2016년도 사업 및 결산 상정안 심의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과실금 사용 사정안 심의의 건이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주말대회에 따른 사무처 직원 대체휴가제 실시, 세계가다(KATA) 및 아시아가다(KATA)선수권 대회 차기 이사회 추가 승인을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 추가 반영, 투명한 행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었다.

대한유도회, 2016년도 기부금 투명성 평가 만점단체로 선정

본회가 지난 2월,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실시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 평가’에서 만점인 별점 5개를 받았다.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지표인 ‘GSK1.0’을 활용, 국내 공익법인 2,553곳을 평가한 결과 대한유도회를 포함한 문화법인 18곳, 월드비전과 밀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법인 58곳, 학술·장학법인 29곳, 교육법인 6곳, 기타 51곳 등 총 162개 단체가 만점을 받았다.

평가대상은 국세청에 의무공시하는 공익법인 8,585곳 중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설립 2년 미만 단체, 기부금 3천만 원 미만 법인 등 6,032곳을 제외한 2,553곳이었다.

NEWS



2017 유도인의 밤 개최

2017 유도인의 밤 행사가 2월 2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픽피아홀에서 개최됐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16년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날 열린 유공자 표창식에서 2016 리우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안바울 선수가 2016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우수선수 15명, 우수단체 10팀, 우수지도자 10명 에 대한 경기상 시상과 시도지부 및 연맹 유공자, 국제대회 유공자, 모범심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2016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안바울(남양주시청)

<2016년도 표창유공자 명단>

최우수선수상	안바울(남양주시청)
우수선수상	정보경(안산시청), 안창림(수원시청), 이주연(한국체대), 곽동한(하이원), 김지윤(동해시청), 이예원(한국체대), 김민정(렛츠런파크),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배혜빈(용인대), 김림환(렛츠런파크), 김잔디(양주시청), 김새리(광주도시철도공사), 김원진(양주시청), 강현철(용인대), 윤재규(한국체대)
우수단체상	부안초(남초부), 장양초(여초부), 보성중(남중부), 입석중(여중부), 보성고(남고부), 광영여고(여고부), 용인대(남대부), 용인대(여대부), 국군체육부대(남일반부), 동해시청(여일반부)
지도상	김광용(남초부), 성경미(여초부), 백승엽(남중부), 이은학(여중부), 이상은(남고부), 현숙희(여고부), 윤 현(남대부), 장성호(여대부), 전만배(남일반부), 배상일(여일반부)
시도지부 및 연맹 유공자	윤용발(서울), 황인수(부산), 이창수(대구), 오원복(인천), 최동훈(광주), 안현석(대전), 이상량(울산), 장주원(세종), 이홍연(경기), 김순철(강원), 이동산(충남), 김명욱(충북), 김성태(전남), 류재규(전북), 허교영(경남), 김용호(경북), 안도성(제주), 김재호(충청교연맹), 정수범(대학), 오정석(실업)
국제대회 유공자	도후성(2016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단장 / 대한유도회 부회장), 김병구(2016 도쿄그랜드슬램 단장 / 한국대학유도연맹 회장)
모범심판	윤현(용인대), 배상일(동해시청)

2017년도 제1, 2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17년도 제1, 2차 정기승단심사가 2월 28일과 5월 31일에 실시됐다.

1차 심사에서는 9단 1명을 포함해 3,303명이, 2차 심사에서는 9단 1명을 포함해 3,093명이 승단했다.

<승단인원 - 1차>

9단	1명	3단	70명
8단	1명	2단	574명
7단	4명	소년2단	62명
6단	6명	초단	2,144명
5단	7명	소년초단	412명
4단	22명		

<승단인원 - 2차>

9단	1명	3단	181명
8단	3명	2단	562명
7단	5명	소년2단	84명
6단	10명	초단	1,646명
5단	49명	소년초단	464명
4단	98명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 파견

2017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문원배 본회 상임심판위원장, 김도준 본회 심판위원장, 윤현 본회 경기위원장이 참가했다.

대한유도회, 이석우 남양주시장에게 유도 공인 4단증 수여

이석우 남양주 시장에게 대한유도회가 발급한 유도 공인 4단증이 수여됐다.

대한유도회는 남양주가 시청 직장운동부 유도선수단에 물심양면 지원하며 한국 남자 유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석우 시장에게 공인 4단증을 수여했다. 김진도 대한유도회장은 “이석우 시장의 관심 덕분에 남양주시청에서 많은 우수선수가 배출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



으로도 한국 유도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도 공인 4단증을 받은 이석우 시장은 “지도자와 선수들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시청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선수단을 지원할 테니 대한유도회도 남양주시청 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김진도 회장, 조용철 상임부회장, 선찬종 전무이사, 윤현 경기위원장 등 대한유도회 임원들이 참석해 이 시장의 4단 수여를 축하했다.

유도인 동정



조용철 상임부회장, 몽골 국방부 훈장 수여

본회 조용철 상임부회장(용인대학교 교수)가 지난 2월 12일, 몽골 뱃데르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몽골 국방부 장관 훈장을 수여받았다. 조용철 상임부회장은 아시아유도연맹 사무총장과 교육보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몽골의 유도 상호교류 및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이중세 자문위원,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선출



이중세 본회 자문위원(전 대한 유도회 부회장)이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체육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중세 회장은 동아일보 체육부장과 사업국장, 스포츠다이 이사 등을 거쳐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과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9년 3월까지 2년이다.

김헌태 전 선문대 감독,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 선임돼



김헌태 전 선문대 감독이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지도할 새로운 전임지도자로 선임됐다.

김헌태 전임지도자는 200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11년동안 선문대학교 유도팀을 지도했고,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가대표 후보선수 코치를 역임하는 등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임기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년간이다.

손양목 전 울산생활고 감독,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로 선임돼



손양목 전 울산생활고학과 감독이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로 선임됐다.

손양목 전담지도자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 현대공고에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생활고등학교에서 지도자로 후배양성에 힘썼다.

이창수, 대표팀 체력트레이너로 선임돼



이창수 전 한국마사회 코치가 6월 4일, 대표팀 트레이너로 선임됐다.

이창수 트레이너는 1990년 베이징아시아안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 북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마사회와 대만국립체육대학교, 대만대표팀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왕기춘, 대표팀 전담팀 전력분석관으로 선임돼



2008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4월 12일, 국가대표 전담팀 전력분석관으로 선임됐다.

왕기춘이 맡은 국가대표 전담

팀 전력분석관은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를 대비해 체계화된 국가대표팀 지원을 통한 경기력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표 선수들의 동작 및 기술분석, 전력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해 현역에서 은퇴한 왕기춘은 올림픽 메달과 다수 국제대회에서의 우승 경력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경험과 기술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인 경조사(2017년 1월~6월)

1월	24일	이무희 한국초중고 유도연맹 회장 모친상
	11일	이천우 서울특별시 유도회장 아들 결혼
2월	20일	문상희 전 원광고 감독 모친상
	25일	최관용 전 대한유도회 여성분과위원장 장녀 결혼
3월	19일	윤용발 서울특별시 유도회 전무이사 병부상
	28일	이태준 부산광역시 유도회 고문 별세
4월	6일	김남준 강원도 유도회 전무이사 모친상
	8일	박인순 전 문일고 감독 장녀 결혼
	15일	양희철 경북 유도회 전무이사 장녀 결혼
5월	29일	심상진 전남 유도회 부회장 장남 결혼
	2일	정경락 대한 유도회 자문위원 병모상
	10일	정성숙 전 대한 유도회 이사 부친상
6월	13일	설영윤 대한 유도회 자문위원 장남 결혼
	8일	윤제철 대한 유도회 감사 모친상
	25일	김정규 서산중앙고 감독 부친상

柔道人 단증, 새롭게 탄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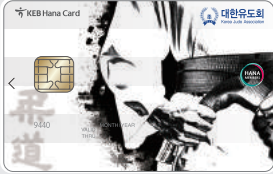
대한유도회는 KEB하나은행과 유도인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으로 대한유도회 단증카드를 출시하여 발급하고 있다.

2017년 1월 12일(목) 대한유도회와 KEB하나은행은 유도인 단증카드 발급,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유도인 유단자 소단증을 KEB하나은행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을 겸비한 단증카드로 발급한다. 단증카드는 대한유도회와 KEB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 ▶ 기존 발급 소단증은 중단하고 신용/체크카드의 금융기능을 추가한 단증카드 발급
- ▶ 매일 카드 국내 사용금액에 따라 0.5%를 하나머니 적립 또는 매월 적립대상 업종별 이용금액 10만 원당 5천 하나머니를 적립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빈에서 매월 4천 원 할인
- ▶ 5대 업종(편의점, 커피, 영화, 체육관, 음식점) 사용 시 1만 원당 100원 캐시백, 대중교통 이용,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시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도회 전용 특화 카드이다.

지난 2월 용인대학교 무도대학에서 열린 '2017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에 KEB하나은행이 참여해 설명회 진행과 단증카드 발급 행사를 진행 하였고, 현재 신규 유단자, 기존 유단자의 단증 발급을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

대한유도회 단증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조건

- 적립기준
하나머니(1하나머니 = 1원)
- 지난달 실적조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할부 사용 금액 30만 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 실적 제외대상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 기프트카드 구매

▶ 일 적립 서비스 (Daily)

- 사용할 때마다 매일매일 적립되는 즐거운 혜택

적립대상	적립조건	적립한도
국내 모든 가맹점 (월 적립서비스 특화가맹점 제외)	사용금액의 0.5% 적립	적립한도 없음

▶ 월 적립 서비스 (Monthly)

- 월 이용금액에 따라 한번에 적립되는 쓸쓸한 혜택

적립대상	적립조건	적립조건	적립한도
온라인 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이번 달 합산 사용금액이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월 최대 1만 하나머니
통신, 교통, 자동차	SKT, SKB, KT, LGU+,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해외	해외 모든 가맹점		

▶ 리프레시 서비스

- (KEB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 월 1회 커피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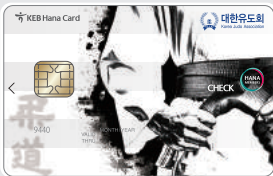
할인대상	할인조건	할인횟수
커피빈, 스타벅스	4천 원 이상 결제하면 4천 원 청구할인	월 1회

▶ 아파트관리비 서비스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월 5천 하나머니 적립 (전월 60만 원 이상 사용 시)

적립대상	적립조건	적립한도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금액 10만 원 이상시	월 최대 5천 하나머니

대한유도회 단증 체크카드



서비스 제공 조건

-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승인시점 기준)의 이용금액 25만 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지난달 이용금액 25만 원 미만 시에도 각각 지난달 이용 금액 25만 원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 5대 업종 이용건별 1만 원당 100원 캐시백(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구분	대상	혜택	한도
편의점	CU, GS25	이용건별 1만 원당 100원 캐시백 (1만 원 미만 매출건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영화	CGV, 메가박스		
체육관	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요식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패스트푸드, 치킨 등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7% 캐시백(월 최대 5천 원 캐시백)

- 캐시백 대상 대중교통 월 3만 원 이상 이용시 제공
*캐시백 대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공항철도

▶ SKT/SK브로드밴드/KT/LGU+ 통신요금 자동이체 캐시백

자동이체 금액	5만 원~10만 원 미만 이용시	10만 원 이상 이용시
캐시백 금액	3천 원	5천 원

동트는 동해 2017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 기간 : 2017년 1월 21~23일 • 장소 : 강원, 동해체육관

개인전 아마추어부

:

• 유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20kg	김규현(안동유도회)	강지후(정부경유도관)	김영진(안동유도관)	김해인(사북유도관)
-30kg	박하을(정부경유도관)	최윤서(울산한국유도관)	-	-
+30kg	문원탁(의정부시유도회관)	-	원유선(의정부시유도회관)	-

• 남초부(1~2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25kg	한규준(춘천유도관)	강동우(울산한국유도관)	이강찬(의정부시유도회관)	임지범(의정부시유도회관)
-30kg	이진혁(청담유도체육관)	윤주경(해운대유심유도관)	최무겸(우석유도체육관)	김준태(우석유도체육관)
-35kg	김규태(안동유도관)	노승찬(에이스유도스쿨)	박준우(해운대유심유도관)	박성진(비전트리 양수유도관)
-40kg	이규현(영광금호유도관)	이윤우(동아대유도관)	한건희(부산상무유도관)	김태준(동해유도관)
+40kg	문기탁(영광금호유도관)	최고성(용인대대한유도관)	김현준(영광금호유도관)	유현석(울산한국유도관)

• 남초부(3~4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0kg	김범수(용인대평택유도관)	손주봉(Pertect Gym)	손석희(안도유도관)	-
-35kg	남준영(부산상무유도관)	장민수(안산유도관)	곽명진(양구군유도회)	최민준(제천유도관)
-40kg	한상준(한성유도관)	신동훈(안동유도관)	백규빈(안산유도관)	문동현(다문초)
-45kg	김준호(영광금호유도관)	김재원(양평 J&J유도체육관)	임규빈(용인대금호유도관)	안세진(하단유심유도관)
-50kg	이희서(김성범유도멀티짐)	임지원(다문초)	김효준(울산한국유도관)	유지민(안산유도관)
-55kg	김용하(안동유도관)	이성준(구남유도체육관)	박민수(당진청룡유도관)	-
+55kg	손은재(하단유심유도관)	박성주(춘천유도관)	강시준(용인대대한유도관)	-

• 남초부(5~6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5kg	정지민(영광금호유도관)	김태희(춘천유도관)	김지운(영광금호유도관)	윤종동(사북유도관)
-40kg	소형욱(안동시유도회)	이준욱(덕천이글스유도관)	신찬영(양평 J&J유도체육관)	성필규(춘천유도관)
-45kg	정승원(경남유도관)	문석민(청담유도체육관)	노형진(용인대평택유도체육관)	우진원(한국국제 대전유도관)
-50kg	윤건우(에이스유도스쿨)	최우진(춘천유도관)	박주성(영광금호유도관)	박성혁(하단유심유도관)
-55kg	우승빈(안산유도관)	우지원(거승유도관)	정이찬(거승유도관)	송의석(한성유도관)
-60kg	문예찬(M2M스포츠아카데미)	김정찬(산본유도관)	이주형(거승유도관)	정형진(한성유도관)
+60kg	윤홍재(용인대투혼유도클럽)	최준혁(청담유도체육관)	박철우(영통유도체육관)	이주형(거승유도관)

• 여초부(1~2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OPEN	한준규(춘천유도관)	강동우(울산한국유도관)	이강찬(의정부시유도회관)	임지범(의정부시유도회관)

• 여초부(3~4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0kg	신민정(안동유도관)	김희진(안동유도관)	김도경(분당유도관)	방민지(동해유도관)
-40kg	김신애(동해유도관)	-	김가은(구남유도체육관)	-
+40kg	석지향(남양주유도체육관)	서주원(영평J&J유도체육관)	김민경(하단유심유도관)	유정연(청담유도체육관)

• 여초부(5~6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5kg	신민정(구남유도체육관)	변희진(용인대투혼유도스쿨)	전세림(구남유도체육관)	-
-45kg	이진영(청담유도체육관)	한소린(춘천유도관)	황윤희(영양초)	이다혜(영양초)
-50kg	이현지(하단유심유도관)	이문지(정부경유도관)	사효원(영양초)	변지현(분당유도관)
+50kg	김려원(용인대투혼유도클럽)	김한별(구남유도체육관)	조현숙(청담유도체육관)	김지수(대구용인대용산유도관)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김영찬(바른자세 권선세유도관)	김상교(춘천유도관)	이준규(덕천이글스유도관)	윤대훈(대한경의유도관)
-51kg	김태홍(하단유심유도관)	김동건(목포시유도회관)	원영민(서대문유도관)	고동인(서대문유도관)
-55kg	김하평(마산무덕관)	박병준(우석유도체육관)	문준혁(용인대투혼유도)	이장엽(분당화랑유도관)
-60kg	정보건(용인대투혼유도클럽)	이제현(상록유도관)	박준희(부천시유도회관)	김영찬(용인대대호유도관)
-66kg	문주용(하단유심유도관)	박승원(동대구유도관)	장효원(상록유도관)	김시호(용인대서정유도체육관)
-73kg	지승환(영통유도체육관)	이진영(안산유도관)	장민기(안산유도관)	조남현(독산유도관)
-81kg	정범석(용인대투혼유도클럽)	김지훈(임학유도관)	정세연(산본유도관)	신동민(남양주유도체육관)
-90kg	이현성(선인유도관)	박동근(스카이유도관)	이주빈(하단유심유도관)	장광영(남양주유도체육관)
+90kg	김민우(바른자세권선세유도관)	이충재(바른자세권선세유도관)	박재우(분당화랑유도관)	임재영(산본유도관)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김민수(하단유심유도관)	김예진(안산상무유도체육관)	장예진(해운대유심유도관)	-
-52kg	정승미(영통유도체육관)	이창미(대한경의유도관)	이은수(홍성유도관)	-
-57kg	박보람(하단유심유도관)	류주영(정부경유도관)	박지예(베스트유도관)	양현지(용인대서정유도체육관)
-63kg	송국희(정부경유도관)	박현서(덕천이글스유도관)	박은경(부천시유도회관)	심소정(거소유도관)
-70kg	김한나(구남유도체육관)	오하은(부천유도회관)	박동영(두암경희대유도관)	강민정(임장사유도관)
+70kg	장민형(중랑마이티체육관)	이예은(구남유도체육관)	최지인(용인대대한유도관)	-

• 남고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55kg	정영현(용인시유도회관)	정성환(춘천유도관)	권규현(M2M스포츠아카데미)	차혁준(Pertect Cym)
-60kg	전우진(영통유도체육관)	김승준(용인대도훈유도클럽)	이재민(용인대금우유도관)	전관재(양평J&J유도체육관)
-66kg	김영학(유사사유도관)	이동욱(의정부시유도회관)	한준호(영광금호유도관)	김태규(유사사유도관)
-73kg	황정현(용인시유도회관)	이송현(영통유도체육관)	이상빈(선인유도관)	신문균(양평J&J유도체육관)
-81kg	남윤수(영통유도체육관)	김대한(영광금호유도관)	하수용(양산유도관)	원지우(용인대서정유도체육관)
-90kg	백규찬(안산유도관)	송지환(유사사유도관)	이상준(안산유도관)	천성원(유사사유도관)
-100kg	김민섭(과천시설관리공단)	문세웅(양산용인대유도관)	이태형(용인대하남유도장)	정용희(유사사유도관)
+100kg	김대웅(서울Y유도체육관)	오택훈(예성유도장)	양성만(두암경희대유도관)	편도훈(용인대대한유도관)

• 여고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5kg	라진주(안산유도관)	김명지(양평J&J유도체육관)	-	-
-48kg	임성미(당진청룡유도관)	최유경(김성범유도열티집)	김수희(청담유도체육관)	박선희(월드유도관)
-52kg	이찬희(송탄유도관)	최유리(유사사유도관)	최민영(청담유도체육관)	김리현(유사사유도관)
-57kg	장보경(영통유도체육관)	홍연주(하단유심유도관)	금수연(월드유도관)	안예지(안산상무유도체육관)
-63kg	정경희(부천시유도회관)	이은서(한성유도관)	채민경(우석유도체육관)	김수빈(한성유도관)
-70kg	심예민(유사사유도관)	손승민(용인대투혼유도스쿨)	장수빈(영통유도체육관)	김채림(한성유도관)
-78kg	전지나(군포시유도회관)	최유진(월드유도관)	김지원(팀레전드체육관)	진소연(동해유도관)
+70kg	조은영(용인대체일유도관)	홍주희(하단유심유도관)	임수연(우석유도체육관)	전민영(정도관)

• 남대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60kg	노진섭(동아대유도관)	정상호(울산한국유도관)	이경민(예성유도관)	김현우(울산한국유도관)
-66kg	임병성(산본유도관)	박태건(양산용인대유도관)	범가브리엘(양산용인대유도관)	박성선(고려대)
-73kg	김종부(의정부유도관)	심이랑(에이스유도스쿨)	딘(고려대)	김준형(하단유심유도관)
-81kg	배진휴(마산무덕유도관)	김주영(마산무덕유도관)	이일환(대구용인대용산유도관)	이성준(춘천유도관)
-90kg	윤대영(유사사유도관)	박지원(춘천유도관)	최준영(안산고잔유도체육관)	이현섭(안산고잔유도체육관)
-100kg	윤석준(동아대유도관)	정인성(울산한국유도관)	김환진(하단유심유도관)	신윤우(Pertect Cym)
+100kg	고정원(서울대)	고정희(안산유도관)	현규호(춘천유도관)	이주오(안산고잔유도체육관)

• 여대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8kg	오서연(극동대)	권소희(극동대)	정한빛(극동대)	박재전(서울대)
-52kg	이신혜(극동대)	이주현(서울대)	박영민(사본유도관)	이재희(유사사유도관)
-57kg	이다엘(극동대)	-	이주희(극동대)	이새영(서울Y유도체육관)
-63kg	박지혜(청담유도체육관)	김누리(산본유도관)	김민주(양산용인대유도관)	김지윤(극동대)
+70kg	김태희(하단유심유도관)	정해경(극동대)	-	-

• 남일반부(청년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73kg	권태희(안동시유도회)	곽인상(영동군유도회)	나경민(안산유도관)	오지영(한성유도관)
-81kg	이태산(경남유도관)	박창욱(안산고잔유도체육관)	김의원(경찰교육원)	윤기운(우리유도관)
-90kg	김태경(법무부교정본부)	김경진(안국군유도회)	유승훈(분당회랑유도관)	신대섭(용인대금오유도관)
+90kg	신만성(예성유도관)	윤광현(용인대평택유도체육관)	정건(유사사유도관)	강현성(법무부교정본부)

• 남일반부(중년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73kg	홍덕표(용인대수호체육관)	이규철(동해유도관)	최문석(용인대금오유도관)	장성욱(용인대강서유도관)
-81kg	서준혁(정부경유도관)	문정수(청담유도체육관)	양해남(산인유도관)	-
-90kg	권기철(김해유도관)	이원준(임장사유도관)	김홍재(라운유도멀티집)	정현우(울산아음유도동호회)
+90kg	정경훈(김해유도관)	김태인(해운대유심유도관)	김종명(한서유도관)	이상인(세종제이원유도관)

• 남일반부(장년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73kg	이영록(하단유심유도관)	최돈철(우석유도체육관)	김유기(양산용인대유도관)	-
-81kg	김위동(안산상무유도체육관)	김민하(삼척유도관)	이종진(대한경의유도관)	-
-90kg	한상학(안산상무유도체육관)	안원희(진천군유도동호회)	김영덕(현대자동차)	최정식(동해유도관)
+90kg	류상열(우석유도체육관)	이의동(용인대하남유도장)	-	-

• 여일반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8kg	김하경(거송유도관)	김영미(대한경의유도관)	최지아(베스트유도관)	박은정(과천시설관리공단)
-52kg	김유라(거송유도관)	김현주(유도클럽상무관)	-	-
-57kg	박소정(과천시설관리공단)	강화경(베스트유도관)	이고은(안동시유도회)	박윤미(안동시유도회)
-63kg	채승아(Pertect Gym)	선미영(용인대제일유도관)	김지혜(용인대제일유도관)	-
-70kg	정설희(서대문유도관)	오루연(정부경유도관)	강정희(라운유도멀티집)	-
-78kg	김경은(삼성디스플레이)	김성영(정도관)	고현진(해운대유심유도관)	송민정(송백유도관)
+78kg	정예우(송탄유도관)	최은영(안산고잔유도체육관)	-	-

단체전 - 아마추어부

종별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초부(1~2학년)		해운대유심유도관	부산상무유도관	하단유심유도관	용인대대한유도관
남초부(3~4학년)		하단유심유도관	울산한국유도관	안산유도관	춘천유도관
남초부(5~6학년)		청담유도체육관	거송유도관	한성유도관	모라이글스유도관
여초부(통합)		청담유도체육관	영양초	-	-
남중부		하단유심유도관	부천시유도회관	바른자세권성세유도관	선인유도관
여중부		부천시유도회관	거송유도관	홍성유도관	용인대대한유도관
남고부		유사사유도관	영통유도관	용인대수호체육관	올림픽유도관
여고부		유사사유도관	영통유도관	부천시유도회관	시화유도클럽
남대부		춘천유도관B	마산무덕유도관	춘천유도관A	거송유도관
여대부		하단유심유도관	서울대학교	하단유심유도관	서울대학교
남일반부		안산상무유도관B	유사사유도관	한성유도관	안산유도관
여일반부		거송유도관	안산고잔유도체육관	안동시유도회	춘천유도관
체육관무차별		용인대투혼유도클럽	영통유도체육관	용인대중앙유도체육관	유사사유도관

개인전 - 선수부

• 남초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36kg		이규민(복삼초)	김서현(명덕초)	이동욱(명덕초)	-
-42kg		이승재(복삼초)	신우진(다문초)	DELO(전주화산초)	박준혁(기린초)
-54kg		안상민(명덕초)	류의건(김해활천초)	이기민(다문초)	-
-60kg		임지민(대남초)	이경진(다문초)	전혁진(옥천초)	김정민(통영초)
-66kg		한승훈(남양주금곡초)	-	-	-
+66kg		류무열(명덕초)	류문열(명덕초)	성민상(명덕초)	이윤형(기린초)

• 여초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36kg		김지나(김해활천초)	-	-	-
-44kg		이소정(동해초)	-	-	-
-48kg		장채원(김해활천초)	전하경(김해활천초)	-	-
-52kg		한서영(대남초)	-	-	-
+52kg		-	-	-	-

단체전 - 선수부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초부	명덕초(경남)	삼산초(울산)	기린초(강원)	복삼초(강원)

본 경연대회

•매치기 본

종별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고등부	1위	김선중	이영인	선인유도관
	2위	이승현	이상운	영통유도체육관
	3위	안종한	전우진	영통유도체육관
일반부	1위	권오욱	김대남	목포시유도회관

•곤히기 본

종별	순위	잡기	받기	소속
중등부	1위	이현성	홍승현	선인유도관
	2위	지승환	정승미	영통유도체육관
	3위	최수중	이사금	용인대제일유도관
고등부	1위	이상빈	전상준	선인유도관
	2위	김현빈	하태민	분당유도관
	3위	최승호	김태현	대한경의유도관
일반부	1위	장발규	김종태	방배유도체육관

•되치기 본

종별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고등부	1위	정호윤	김영규	용인대호계유도관
	2위	김영우	박민준	유사사유도관
	3위	한진희	문현빈	송탄유도관

•부드러운 본

종별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고등부	1위	김태환	고상흠	분당유도관
	2위	방진우	김리현	유사사유도관
	3위	고준영	이효은	용인대서정유도관
일반부	1위	김재일	서해경	방배유도체육관

•호신의 본

종별	순위	잡기	받기	소속
일반부	1위	배태준	강민기	분당유도관

2017 세계 및 아시아유소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발전

• 기간 : 2017년 3월 28일~4월 2일 • 장소 :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개인전

• 남초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32kg		이준현(원일초)	김서현(명덕초)	-
-36kg		한성수(명덕초)	임의석(서울창일초)	방상현(인천신현북초)
-42kg		김재욱(솔샘초)	장성훈(조촌초)	양현진(육천초)
-48kg		황보재훈(남산초)	한동아(육천초)	윤건우(서울잠전초)
-54kg		염태웅(솔샘초)	김도윤(삼산초)	-
-60kg		김우원(남산초)	김형석(육천초)	-
-66kg		김남형(인천신현북초)	-	-
+66kg		곽현(삼산초)	정태민(솔샘초)	이유민(삼산초)

• 여초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36kg		윤우미(인천신현북초)	곽정영(솔샘초)	-
-42kg		이다혜(영양초)	황윤희(영양초)	정유미(삼산초)
-48kg		김보경(솔샘초)	문려원(솔샘초)	-
-57kg		최수진(대남초)	김연주(외도초)	-
+57kg		김초희(광양마동초)	-	-

• 남중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5kg		이현석(전북중)	박민섭(대전대성중)	윤효성(신현중)
-48kg		윤현수(덕현중)	최재우(안락중)	한진욱(관산중)
-51kg		박진영(부산체중)	김용신(동명중)	신우혁(순천신흥중)
-55kg		박문홍(안락중)	송주현(대전대성중)	임철민(제주서중)
-60kg		이명서(대전체중)	강원빈(광주체중)	우정명(아음중)
-66kg		전도원(성남중)	이준환(관산중)	김대현(덕원중)
-73kg		전홍민(성남중)	정재훈(부평서중)	김문수(서울체중)
-81kg		김우균(동명중)	최도훈(하계중)	이도윤(경민중)
-90kg		박성환(덕현중)	김형석(전북중)	육원준(원광중)
+90kg		김주형(송도중)	신태양(부평서중)	구준현(동명중)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2kg	유예슬(북원여중)	김예인(덕현중)	김민지(광양마동중)	-
-45kg	김수연(광양마동중)	김소현(철원여중)	추경은(북원여중)	이지연(달성중)
-48kg	장세윤(서울체중)	김보민(금곡중)	김보경(순천신흥중)	임지원(청라중)
-52kg	이아름(덕현중)	차아리(영선중)	성현지(부산체중)	정나리(안락중)
-57kg	허슬미(덕현중)	정아현(전북체중)	최정아(영선중)	김지예(입석중)
-63kg	정승아(덕현중)	김민예(동지여중)	추홍선(철원여중)	천혜진(경기체중)
-70kg	이윤선(금곡중)	고가영(전북중)	노예슬(경민여중)	김민주(광주체중)
+70kg	박성은(광주체중)	김지영(관산중)	강윤지(제주동여중)	장유경(진랑중)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5kg	백세웅(목포고)	전승우(경기체고)	이태화(대전체고)	이큰솔(보성고)
-60kg	진재호(우석고)	이은경(보성고)	안재홍(경민고)	황일태(송도고)
-66kg	이진규(신철원고)	윤휘상(도개고)	강민수(해동고)	김지훈(보성고)
-73kg	이상준(주문진고)	강성민(충북체고)	황영권(영서고)	황진승(충북체고)
-81kg	이남훈(주산산업고)	이재용(보성고)	조문수(덕원고)	우찬식(성남고)
-90kg	황민혁(경민고)	한지훈(해동고)	권오찬(김천중앙고)	서재현(청서고)
-100kg	신재우(보성고)	김경환(송도고)	한정재(동지고)	이승엽(부산체고)
+100kg	김민준(보성고)	성준협(주문진고)	배세진(비봉고)	정준용(김천중앙고)
무제한	김민준(보성고)	배세진(비봉고)	김두용(계성고)	서재현(청서고)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박소영(충북체고)	황혜진(광영여고)	연은진(경민IT고)	유수희(광영여고)
-48kg	유주희(경기체고)	이혜인(철원여고)	김지연(대전체고)	박혜진(서울체고)
-52kg	장윤진(서울체고)	김한솔(서울체고)	김진희(철원여고)	추희선(철원여고)
-57kg	김주희(충북체고)	신유리(광주체고)	채정아(서울체고)	이수빈(경민IT고)
-63kg	이고은(전북체고)	김 현(인천체고)	김군주(대구체고)	김미수(부산체고)
-70kg	김은솔(경민IT고)	윤주희(영서고)	유예진(주산산업고)	선채림(여수정보고)
-78kg	김이현(여수정보고)	김소리(영서고)	김민영(삼정고)	최정원(광영여고)
+78kg	김하윤(삼정고)	임보영(경민IT고)	최홍영(경민IT고)	박샛별(대구체고)
무제한	김하윤(삼정고)	임보영(경민IT고)	강다빈(도개고)	윤주희(영서고)

단체전



종별 \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고부	우석고	경민고	동지고	원광고
여고부	경민IT고	광영여고	동지여고	충북체고
남중부	보성중	안락중	동명중	순천신흥중
여중부	덕현중	안락중	북원여중	신현여중
남초부	솔샘초	삼산초	-	-
여초부	솔샘초	광양마동초	-	-

2017 춘계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

• 기간 : 2017년 4월 10~12일 • 장소 : 강원도, 신철원중·고등학교 체육관

개인전

⋮

• 남자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임은준(경기대)	방준우(동의대)	배 혁(계명대)	정현호(한국체대)
-66kg	정용욱(한국체대)	신 호(용인대)	고탁현(청주대)	박준영(영남대)
-73kg	강현철(용인대)	전지원(계명대)	안준성(용인대)	김준영(한국체대)
-81kg	이준성(한국체대)	이위진(용인대)	김윤호(영남대)	이성근(용인대)
-90kg	문규준(용인대)	김한수(경기대)	김성훈(세한대)	최진우(청주대)
-100kg	이현용(용인대)	홍진수(용인대)	신병재(선문대)	정진형(한양대)
+100kg	양성민(용인대)	윤재구(한국체대)	박병민(청주대)	신정윤(한국체대)

• 여자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박은이(한국체대)	황채림(대구과학대)	오연주(한국체대)	오영지(용인대)
-52kg	장예진(용인대)	김이현(경기대)	이근혜(용인대)	이동현(용인대)
-57kg	이재란(용인대)	남은현(용인대)	김혜빈(마산대)	전은빈(용인대)
-63kg	박다운(용인대)	김현지(용인대)	공서영(용인대)	최지우(한국체대)
-70kg	류도희(용인대)	김혜미(한국체대)	송세령(용인대)	박주영(대구과학대)
-78kg	문다슬(한국체대)	최은현(용인대)	이다빈(한국체대)	이도경(대구과학대)
+78kg	한미진(용인대)	김태연(경기대)	이은지(대구과학대)	최다솜(경운대)

단체전

⋮

종별 \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부	한국체대	세한대	영남대	인하대
여자부	한국체대	대구과학대	대구의국어대	경기대

2017 전국실업유도최강전

• 기간 : 2017년 4월 17~19일 • 장소 :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개인전

• 남자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장민진(한국철도공사)	이찬주(포항시청)	문길주(한국철도공사)	안희천(국군체육부대)
-66kg	김원진(경남도청)	한장수(양평군청)	조준영(부산광역시청)	권재덕(국군체육부대)
-73kg	최준근(광주시체육회)	곽봉주(국군체육부대)	장승진(양평군청)	최은송(경찰체육단)
-81kg	이재형(포항시청)	송민기(경찰체육단)	이영준(한국철도공사)	이희종(렛츠런파크)
-90kg	이재용(한국철도공사)	정원준(철원군청)	한경진(국군체육부대)	김형기(철원군청)
-100kg	원종훈(경찰체육단)	김경준(경찰체육단)	김영훈(여수시청)	김정희(용인시청)
+100kg	강진수(독도스포츠타단)	한경수(여수시청)	정지원(경남도청)	정병철(여수시청)

• 여자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	이세영(인천광역시청)	배슬비(대구광역시청)	손선혜(충북도청)
-52kg	하주희(고창군청)	정정윤(충북도청)	장지영(제주특별자치도청)	최수희(성동구청)
-57kg	김진디(포항시청)	정현경(경남도청)	김새리(광주도시철도공사)	성지은(부산광역시북구청)
-63kg	최은솔(인천광역시청)	윤여은(철원군청)	명지혜(부산광역시북구청)	권미성(전남체육회)
-70kg	남아림(성동구청)	신슬기(부산광역시북구청)	이지수(동해시청)	정혜진(안산시청)
-78kg	박은지(충북도청)	윤현지(안산시청)	임정수(안산시청)	-
+78kg	엄다현(안산시청)	이정은(인천광역시청)	윤영주(전남체육회)	우정민(대구광역시청)

단체전

종별 \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부	렛츠런파크	용인시청	부산광역시청	국군체육부대
여자부	포항시청	고창군청	경남도청	충북도청

제88회 YMCA 전국유도대회

• 기간 : 2017년 4월 24~26일 • 장소 : 전남, 영암실내체육관

개인전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이은결(보성고)	서보민(해동고)	진재호(우석고)	김화수(서산중앙고)
-66kg	이진규(신철원고)	권영민(경민고)	문성범(주문진고)	한재광(우석고)
-73kg	최훈(경민고)	김영훈(서울체고)	최민서(원광고)	이중찬(순천공고)
-81kg	도형준(해동고)	이재용(보성고)	한세희(경민고)	원종민(원광고)
-90kg	한지훈(해동고)	정다빈(금호공고)	유지훈(덕원고)	황민혁(경민고)
-100kg	심재우(보성고)	원찬희(경민고)	정승철(신철원고)	강태현(순천공고)
+100kg	김민중(보성고)	성준혁(주문진고)	김두용(계성고)	유병일(동지고)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유주희(경기체고)	장가은(영서고)	조혜연(동문고)	박예진(서울체고)
-52kg	장윤진(서울체고)	추희선(철원여고)	주재희(서울체고)	김가연(영선고)
-57kg	이수빈(경민고)	신유리(광주체고)	전슬빈(전북여고)	조윤의(광주체고)
-63kg	정이주(경민고)	임우주(경기체고)	김보경(영선고)	최지원(도개고)
-70kg	강다빈(도개고)	윤주희(영서고)	최임지(주문진고)	김다영(인천체고)
-78kg	김유진(영선고)	최수연(금곡고)	이푸름(철원여고)	차지원(인천체고)
+78kg	김하윤(삼정고)	박세리(광영여고)	조은나(경민고)	최홍영(경민고)

단체전



종별 \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고부	보성고(서울)	우석고(전북)	경민고(경기)	주문진고(강원)
여고부	광영여고(서울)	경민고(경기)	인천체고(인천)	서울체고(서울)

2017 용인대총장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유도대회

• 기간 : 2017년 5월 16~19일 • 장소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개인전

• 남중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5kg		두민재(보성중)	하승우(관산중)	이우진(성남중)
-48kg		박민태(보성중)	김지우(도개중)	서성원(개웅중)
-51kg		김덕훈(진량중)	정근표(인천검단중)	김만수(해동중)
-55kg		안재민(해동중)	장대환(금호중)	김유빈(신현중)
-60kg		이도협(성남중)	송동현(대전리중)	진선영(보성중)
-66kg		김성현(도개중)	이재명(보성중)	이승찬(보성중)
-73kg		정재훈(부평서중)	김영준(금호중)	박희민(진량중)
-81kg		최도훈(하계중)	박태식(보성중)	김예찬(보성중)
-90kg		안영표(비봉중)	이지원(경기체중)	김민우(보성중)
+90kg		서동규(보성중)	신태양(부평서중)	박영제(하계중)

• 여중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45kg		김소현(철원여중)	박경혜(북평여중)	진해빈(광문중)
-48kg		지가현(관산중)	이희연(북평여중)	이승연(달성중)
-52kg		한민희(관산중)	양지현(도개중)	박세은(대전체중)
-57kg		황아영(철원여중)	박선예(하계중)	김영우(북평여중)
-63kg		천혜진(경기체중)	김은이(철원여중)	추홍선(철원여중)
-70kg		안현진(철원여중)	피지민(덕천여중)	-
+70kg		노연희(덕천여중)	강지수(대전체중)	박지연(철원여중)

• 남고부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60kg		박건태(충남체고)	박준호(공호공업고)	전승우(경기체고)
-66kg		김지운(보성고)	이은결(보성고)	조영욱(도개고)
-73kg		최훈(경민고)	김영훈(서울체고)	최민서(서울체고)
-81kg		김태훈(경북체고)	한세희(경민고)	이한솔(인천체고)
-90kg		정인성(삼천포중앙고)	서재현(청석고)	최명준(울산스과고)
-100kg		이승엽(부산체고)	박충봉(대전체고)	이우재(비봉고)
+100kg		김민종(보성고)	이승수(충남체고)	송우혁(우석고)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정경은(광주체고)	이혜민(철원여고)	김혜빈(부산체고)	박예진(서울체고)
-52kg	주재희(서울체고)	김한솔(서울체고)	김수민(충북체고)	추희선(철원여고)
-57kg	김주희(충북체고)	이수빈(경민IT고)	신유리(광주체고)	전솔빈(전북여고)
-63kg	임우주(경기체고)	이아현(경민IT고)	지연주(영서고)	김윤(부산체고)
-70kg	윤주희(영서고)	김은솔(경민IT고)	김민경(울산생과고)	이주영(용문고)
-78kg	김주윤(울산생과고)	박소연(충북체고)	정나은(부산체고)	김성은(진랑고)
+78kg	임보영(경민IT고)	조은나라(경민IT고)	박세리(광영여고)	구은정(충남체고)

단체전

⋮

종별 \ 순위	우승	준우승	3위	
남중부	성남중	보성중	화산중	권선중
여중부	철원여중	덕천여중	-	-
남고부	보성고	우석고	경민고	삼천포중앙고
여고부	경민IT고	충북체고	울산생과고	영서고

본 경연대회

⋮

• 매치기 본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금상	안종한	전우진	영통유도체육관
은상	이승현	이상운	영통유도체육관

• 굳히기 본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금상	최승호	김태현	경의유도관
은상	지승환	강재윤	영통유도체육관
동상	이현성	홍승현	선인유도관

• 부드러운 본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금상	고준영	이효은	서정유도관
은상	이유빈	김은재	영통유도체육관
동상	김태환	고상흠	분당유도관

• 되치기 본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금상	정호윤	김명규	호계유도관
은상	이강준	이승준	영통유도체육관
동상	서기상	임용섭	광양유도관

• 호신의 본

순위	잡기	받기	소속
금상	황채린	이규민	분당유도관
은상	이현영	이준표	분당유도관
동상	김유은	이정훈	제일유도관

대한유도회(K.J.A)공인업체

武術의 脈과 함께하는 企業 武術社

품질좋은 유도복을 생산하는
40여년 전통의 무술사는
당신의 운동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취급 품 목

- 시합용 유도복(백색.청색)
- 시합용 기능성 유도복(백색)
- 연습용 유도복(백색.청색)
- 학교 수업용 유도복
- (그외 각종도복및 무술용품업체)

ITEM: Martial arts uniforms & Equipments



武術社

武術社

MOO SOOL SA IND., CO.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4길 25, 광신빌딩 6층

6F, GWANG SHIN B/D

9 BONJI, GWANG HUIDONG 1-GA

CHUNG-GU, SEOUL, KOREA

TEL : 2237-9991~2, FAX, 2237-9993

E-mail: customercare@moosoolsa.com.

Homepage : <http://www.moosoolsa.com>

<http://www.martialarts.co.kr>

2017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2월 28일)

9단

127 최성배

8단

10429 이호장

7단

11923 김정규

11920 김재균

11921 이현진

11922 서정복

6단

13027 배형정

13028 정성원

13029 고영준

13030 이원산

13031 신상호

13032 이상문

5단

14888 이상화

14889 이경익

14890 박상열

14891 허재영

14892 윤영종

14893 노주성

14894 이성규

4단

25132 이태백

25133 최진영

25134 정진우

25135 도우찬

25136 강두용

25137 정한수

25138 이형진

25139 임윤석

25140 박지율

25141 김순임

25142 이기우

25143 김주연

25144 최지용

25145 권준형

25146 김재영

25147 유은지

25148 이소희

25149 이지훈

25150 장현영

25151 조덕신

25152 황성훈

25153 서종욱

3단

40533 박주한

40534 이경환

40535 김병후

40536 조민재

40537 김성준

40538 김휘건

40539 김준영

40540 왕윤식

40541 이상필

40542 구형남

40543 이석호

40544 노봉영

40545 이경목

40546 박준형

40547 이홍주

40548 이주용

40549 차재만

40550 김여경

40551 오승철

40552 한승상

40553 권민석

40554 김성규

40555 이은호

40556 박경신

40557 서현정

40558 이대형

40559 유재근

40560 김휘진

40561 노광래

40562 성기선

40563 이준호

40564 이정현

40565 손인준

40566 김세훈

40567 백민수

40568 최호범

40569 윤석민

40570 장형조

40571 양혜인

40572 김진성

40573 김원석

40574 강형근

40575 변성진

40576 안정욱

40577 김나윤

40578 김소연

40579 정정민

40580 노영경

40581 박민규

40582 김동권

40583 윤준용

40584 장재용

40585 이영현

40586 이윤석

40587 김동준

40588 김승연

40589 김영준

40590 변제현

40591 신현국

40592 신해인

40593 삼규학

40594 안대호

40595 양지수

40596 엄익선

40597 연동현

40598 원준철

40599 이구원

40600 정유현

40601 채준희

40602 현승주

2단

128142 김혜명

128143 이승렬

128144 김선규

128145 김 원

128146 조봉수

128147 이 원

128148 문혜민

128149 김도윤

128150 최흥태

128151 김지현

128152 서리라

128153 최지예

128154 유명석

128155 김한결

128156 유명아

128157 조솔

128158 이예솔

128159 유현희

128160 김태훈

128161 신지호

128162 전지환

128163 하강현

128164 정해완

128165 권동훈

128166 정승엽

128167 황정욱

128168 최현호

128169 김무민

128170 임미래

128171 이재홍

128172 임진강

128173 여한주

128174 소재영

128175 조병민

128176 김기범

128177 엄다영

128178 성태모

128179 정윤호

128180 이훈

128181 강진규

128182 박진수

128183 송채린

128184 박준수

128185 가대순

128186 하늘

128187 금진혁

128188 노수찬

128189 강지우

128190 백상민

128191 정성우

128192 여인국

128193 유승진

128194 유승민

128195 김주훈

128196 임미진

128197 남건우

128198 송지호

128199 손병기

128200 김한규

128201 우병욱

128202 황원종

128203 조영민

128204 차연수

128205 류현우

128206 김현주

128207 양경현

128208 임영상

128209 이승엽

128210 박유혁

2017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2월 28일)

128211	김창현	128250	현승훈	128289	정연윤	128328	석현진	128367	김환석
128212	이중현	128251	강지영	128290	박수현	128329	김초현	128368	김지영
128213	김선우	128252	김진옥	128291	장진혁	128330	이유리	128369	이예송
128214	이다니엘	128253	박진아	128292	김일권	128331	박한솔	128370	임여선
128215	노현석	128254	오옥택	128293	오진현	128332	김현정	128371	송현화
128216	고혜인	128255	최유미	128294	신찬옥	128333	윤지호	128372	김기호
128217	허거희	128256	남백삼	128295	남시명	128334	진지윤	128373	박수현
128218	신광섭	128257	박경빈	128296	남우석	128335	박재경	128374	염유진
128219	문준철	128258	김민혁	128297	원오철	128336	유승훈	128375	염수용
128220	김우석	128259	노진섭	128298	장재윤	128337	장동준	128376	백승현
128221	김호민	128260	정윤식	128299	김성민	128338	이덕재	128377	전상현
128222	유민수	128261	조하리	128300	장준영	128339	정민욱	128378	이준희
128223	최재석	128262	최선영	128301	최승우	128340	최윤솔	128379	박호용
128224	윤재구	128263	주재현	128302	노건호	128341	이정욱	128380	임승완
128225	윤성서	128264	서혜민	128303	김지유	128342	김원수	128381	김경호
128226	유근하	128265	이정몽	128304	강효진	128343	김준표	128382	정우식
128227	안창용	128266	김기영	128305	김세웅	128344	한석훈	128383	서진원
128228	권정흠	128267	구도영	128306	강혜진	128345	김현아	128384	김지원
128229	정재우	128268	김지영	128307	최하나	128346	오기종	128385	조현석
128230	황선웅	128269	김경미	128308	정민서	128347	정이형	128386	민여진
128231	황성희	128270	김하윤	128309	류재한	128348	박준원	128387	김소은
128232	이정원	128271	김민영	128310	송헌재	128349	박수빈	128388	백소정
128233	윤창현	128272	이종욱	128311	김영환	128350	김진환	128389	최승민
128234	윤근호	128273	양성우	128312	배정호	128351	김현겸	128390	이지환
128235	윤나희	128274	강민석	128313	김원규	128352	박 찬	128391	배금천
128236	임다예	128275	정건우	128314	김만수	128353	김경욱	128392	신동철
128237	김용훈	128276	신한별	128315	박광현	128354	이 길	128393	김종훈
128238	김혜림	128277	우태호	128316	장준우	128355	임창이	128394	임준영
128239	송선호	128278	전수현	128317	변재기	128356	김상희	128395	김민석
128240	민원기	128279	이태운	128318	김소정	128357	임광섭	128396	김은성
128241	서동수	128280	이은정	128319	전현진	128358	한 신	128397	남강민
128242	신형재	128281	김현성	128320	한지민	128359	전성일	128398	김현욱
128243	박경순	128282	이승엽	128321	정다은	128360	정재은	128399	황상근
128244	주성룡	128283	김태인	128322	최선연	128361	문경희	128400	김선우
128245	김현근	128284	배광호	128323	김지현	128362	김오순	128401	문승준
128246	윤정호	128285	임종기	128324	장영은	128363	천재웅	128402	서동수
128247	이한결	128286	김대훈	128325	이진희	128364	마상현	128403	지영훈
128248	이재영	128287	조흠철	128326	김유빈	128365	김도경	128404	조신원
128249	홍지훈	128288	박상현	128327	장효정	128366	홍성욱	128405	박주신

2017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2월 28일)

128406	김선중	128445	김태희	128484	김범준	128523	최재운	128562	이성재
128407	김명규	128446	배연호	128485	윤성수	128524	김수정	128563	이준하
128408	변승현	128447	신동훈	128486	박창선	128525	이유진	128564	박환희
128409	조한선	128448	안채연	128487	박유빈	128526	이건호	128565	심우현
128410	박궁현	128449	이준희	128488	김효진	128527	민찬규	128566	이 솔
128411	태하영	128450	정진산	128489	김진성	128528	강한별	128567	이학승
128412	송상철	128451	김형민	128490	박병선	128529	김성태	128568	고연준
128413	정대진	128452	안승욱	128491	이성국	128530	김정준	128569	백지원
128414	정규화	128453	김아름	128492	최상기	128531	장병호	128570	연소영
128415	이응서	128454	박소희	128493	임한영	128532	천영석	128571	유하나
128416	김명빈	128455	고영훈	128494	오정민	128533	김준일	128572	최재은
128417	박창욱	128456	류병민	128495	강민정	128534	양규승	128573	김규익
128418	김용찬	128457	김호경	128496	김창호	128535	정세영	128574	김동현
128419	김슬기	128458	김영범	128497	이시후	128536	신양환	128575	이찬희
128420	김연준	128459	장현석	128498	신혜진	128537	하태규	128576	최선우
128421	조강현	128460	신보람	128499	하주형	128538	이예성	128577	한재윤
128422	김한수	128461	최지현	128500	박태준	128539	박동훈	128578	신사람
128423	김재탁	128462	임지연	128501	유건재	128540	조선우	128579	이혜주
128424	장승혁	128463	박예은	128502	김현진	128541	강주성	128580	정다인
128425	이다민	128464	권보미	128503	문진석	128542	홍준기	128581	함규이
128426	박민준	128465	강연우	128504	신민욱	128543	오경원	128582	허 건
128427	전우택	128466	김동암	128505	이보석	128544	김준혁	128583	김 건
128428	정형구	128467	김다은	128506	정상호	128545	박건우	128584	김우준
128429	권 인	128468	유상현	128507	조원준	128546	김동휘	128585	김현성
128430	송시은	128469	김윤호	128508	김주희	128547	서슬기	128586	김한경
128431	이건학	128470	안재석	128509	김태훈	128548	김동기	128587	김현희
128432	이상은	128471	양아영	128510	정진선	128549	김지수	128588	박민정
128433	유태원	128472	최규리	128511	구임송	128550	박철호	128589	이우영
128434	윤희상	128473	임종현	128512	김민철	128551	김민식	128590	유수진
128435	김소연	128474	문해경	128513	김윤선	128552	백평화	128591	이은진
128436	서지은	128475	소원종	128514	박주영	128553	권기혁	128592	김성렬
128437	이의균	128476	장종철	128515	유상욱	128554	고동욱	128593	하다빈
128438	한태권	128477	송현창	128516	은경호	128555	고동빈	128594	최창호
128439	김영재	128478	곽나영	128517	이선화	128556	김진혁	128595	이은혜
128440	황봉근	128479	전진우	128518	이태진	128557	김희수	128596	이정민
128441	조미주	128480	천정범	128519	장정윤	128558	손민석	128597	정수민
128442	최지윤	128481	남윤호	128520	장진선	128559	양수연	128598	김주영
128443	김민하	128482	박정원	128521	전태영	128560	여민구	128599	김민기
128444	김동국	128483	이민경	128522	한소연	128561	우진협	128600	예찬호

2017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2월 28일)

128601	강진홍	128640	장종민	128679	양재혁	4869	조윤희	4908	한서영
128602	김승준	128641	김창환	128680	이강진	4870	정현영	4909	장주원
128603	신지훈	128642	임채은	128681	양화동	4871	손현승	4910	박시현
128604	조윤성	128643	최진주	128682	조석진	4872	김민규	4911	김재현
128605	김상영	128644	이준호	128683	정상구	4873	신준오	4912	정다영
128606	최연진	128645	김동희	128684	사공훈	4874	박준목	4913	원치규
128607	박타령	128646	윤승민	128685	신재성	4875	한동아	4914	원치훈
128608	박민수	128647	김덕현	128686	고민종	4876	박성수	4915	정석준
128609	김지혜	128648	최병수	128687	이상민	4877	김형석	4916	이승주
128610	신승엽	128649	정혜인	128688	이유진	4878	김민재	4917	안영해
128611	권준혁	128650	박수빈	128689	안소린	4879	문화진	4918	송동현
128612	김민수	128651	이경민	128690	권다슬	4880	최규준	4919	정태진
128613	하수용	128652	조수민	128691	김자은	4881	김민기	4920	진석현
128614	권혁규	128653	구성대	128692	박승영	4882	방정훈	4921	김주승
128615	배상호	128654	김동영	128693	심무섭	4883	박수진	4922	정종수
128616	허민주	128655	지승은	128694	박선민	4884	이호중	4923	김종민
128617	김민규	128656	김민지	128695	장선민	4885	황재민	4924	김현성
128618	이군재	128657	박희찬	128696	박지우	4886	유우찬	4925	박태호
128619	강민주	128658	이승은	128697	최혜수	4887	최은한	4926	정호준
128620	성해국	128659	이하린	128698	하예진	4888	김연수	4927	황희상
128621	조연경	128660	양은혜	128699	현승협	4889	이디한	4928	문예찬
128622	이준영	128661	최유정	128700	최희원	4890	윤주승	4929	양재호
128623	배건우	128662	이주현	128701	강호범	4891	맹예준		
128624	김한섭	128663	이가은	128702	김경훈	4892	손창규		
128625	노재우	128664	송은영	128703	김기영	4893	김도현		
128626	조영근	128665	김예원	128704	김동의	4894	이지상		
128627	유민재	128666	박승미	128705	김준근	4895	김기민		
128628	최성현	128667	안효빈	128706	문서경	4896	윤성민		
128629	김진우	128668	은초해	128707	유승종	4897	안필립		
128630	김대현	128669	이상일	128708	윤요섭	4898	차재환		
128631	오유민	128670	김정인	128709	임문혁	4899	조훈서		
128632	정혜진	128671	강구성	128710	장호복	4900	장효주		
128633	김유림	128672	이근효	128711	정혜윤	4901	김민재		
128634	하니경	128673	이종창	128712	최승신	4902	김민찬		
128635	황지운	128674	이수익	128713	최인혁	4903	왕도현		
128636	양혜주	128675	장철웅	128714	은성준	4904	최우진		
128637	최석현	128676	강정구			4905	이재겸		
128638	김효정	128677	황재영	소년2단		4906	윤석호		
128639	최혜정	128678	김상현	4868	김덕훈	4907	정형진		

2017년도 제2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5월 31일)

9단

128 임종안

8단

10430 박종양

10431 이천우

10432 안병근

7단

11924 박근형

11925 조정복

11926 김종일

11927 김양호

11928 한순남

6단

13033 박행남

13034 손호근

13035 임선제

13036 최상호

13037 한상우

13038 김찬선

13039 황희태

13040 김경운

13041 임준택

13042 신경수

5단

14895 김진환

14896 김용금

14897 조영태

14898 이수병

14899 서은미

14900 김동락

14901 강만진

14902 장임준

14903 허필구

14904 박수현

14905 김중률

14906 최승언

14907 장영익

14908 김창근

14909 송병운

14910 김재형

14911 허준호

14912 박현동

14913 서혜희

14914 전진희

14915 김선규

14916 장순이

14917 윤성현

14918 최정문

14919 정윤택

14920 김대호

14921 이강의

14922 김판수

14923 송대남

14924 방귀만

14925 박광식

14926 박문찬

14927 채성훈

14928 이준호

14929 고재춘

14930 서영대

14931 김휘목

14932 윤혁로

14933 이동주

14934 정지선

14935 김미화

14936 양창열

14937 김보성

14938 백승훈

14939 황윤기

14940 조준형

14941 권영우

14942 정원석

14943 정상규

4단

25154 유현보

25155 여유림

25156 이현우

25157 인용성

25158 김종성

25159 허영재

25160 최승혁

25161 강세구

25162 박안석

25163 김주연

25164 최순호

25165 이재훈

25166 신승윤

25167 김길훈

25168 왕기춘

25169 박재운

25170 왕소연

25171 조성민

25172 이창우

25173 배협진

25174 최천

25175 조대일

25176 박연복

25177 오승엽

25178 구영수

25179 김기태

25180 이현민

25181 이상준

25182 권영민

25183 손선훈

25184 강민재

25185 양성철

25186 이준엽

25187 김해성

25188 엄현준

25189 김민섭

25190 김대현

25191 김광민

25192 차시환

25193 임동국

25194 고희범

25195 관진수

25196 구민규

25197 권민성

25198 김동범

25199 김예지

25200 김재훈

25201 김주영

25202 김지호

25203 김지훈

25204 김진우

25205 김희중

25206 남아림

25207 도재현

25208 문호창

25209 박문기

25210 박상철

25211 박명인

25212 박세진

25213 배재현

25214 손민석

25215 손병수

25216 신태숙

25217 원목진

25218 유여문

25219 윤여은

25220 윤태훈

25221 이경진

25222 이만엽

25223 이수현

25224 이소연

25225 이정곤

25226 이종혁

25227 이지수

25228 장동민

25229 전주현

25230 정민섭

25231 정병남

25232 정원철

25233 정혜진

25234 조우신

25235 조준혁

25236 주창현

25237 주철진

25238 지승범

25239 지현진

25240 최민혁

25241 최민호

25242 최주민

25243 하동윤

25244 하주희

25245 한경진

25246 한주열

25247 함영진

25248 현승훈

25249 홍성환

25250 홍정은

25251 이정민

3단

40603 김종규

40604 서종환

40605 이종진

40606 이희재

40607 홍진오

40608 김원미

40609 이태종

40610 장대수

40611 강민성

40612 김문철

40613 김영대

40614 김아림

40615 김기우

40616 오태웅

40617 권대명

40618 김성훈

40619 최명훈

40620 나성주

40621 신강일

40622 김재경

40623 박정환

40624 강우호

40625 장준영

40626 서보영

40627 홍지훈

40628 김미경

40629 서정재

40630 전석중

40631 장승원

40632 이상화

40633 최재백

40634 정구봉

40635 강원태

40636 한도경

40637 윤영찬

40638 서창민

40639 이준용

40640 김석중

40641 오세훈

40642 정세진

40643 오세영

40644 성지연

40645 박진수

40646 김한우

40647 박홍균

40648 박현민

40649 광영대

40650 정보현

40651 양서준

40652 강민호

40653 정윤기

40654 노지영

40655 이서현

40656 신석민

40657 김태오

40658 조병근

40659 신용주

40660 신현일

40661 정재한

40662 박해성

40663 김민규

40664 정성배

40665 경동

40666 이진수

40667 김민재

40668 백승수

40669 김학범

40670 서옥환

40671 최용우

40672 서충현

40673 윤민혁

40674 이재균

40675 원난희

40676 이은솔

40677 조규환

40678 박영석

2017년도 제2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5월 31일)

40679	이미선	40730	김민수	40781	황지환	128761	송진호	128812	조성배
40680	박수진	40731	최호동	40782	이민재	128762	김영상	128813	박지은
40681	한지현	40732	이지혜	40783	김민석	128763	이예지	128814	강은지
40682	김수진	40733	최다솜			128764	유병규	128815	전현석
40683	이동하	40734	김혜민		2단	128765	김은하	128816	박초록
40684	김태환	40735	박상준	128715	공현빈	128766	조현성	128817	최영주
40685	표민혁	40736	김동호	128716	이 슬	128767	이찬원	128818	이우종
40686	유철호	40737	윤혜영	128717	이연호	128768	서진수	128819	김영식
40687	한용일	40738	박대인	128718	김주영	128769	안경희	128820	최덕영
40688	정기성	40739	이정훈	128719	손동완	128770	김중섭	128821	배두한
40689	오종윤	40740	소다미	128720	이연희	128771	김정연	128822	이예린
40690	임정훈	40741	윤영수	128721	김재오	128772	주승현	128823	권태희
40691	김창균	40742	추봉조	128722	석영록	128773	권기호	128824	조우석
40692	신가람	40743	이재경	128723	양진성	128774	지은광	128825	이준호
40693	이 설	40744	홍광민	128724	이의찬	128775	주우석	128826	최철환
40694	김원욱	40745	조희태	128725	정한찬	128776	정상호	128827	김형주
40695	김효식	40746	고관보	128726	공동준	128777	송득영	128828	조재현
40696	이승주	40747	고수진	128727	김창호	128778	민경기	128829	김민지
40697	노윤철	40748	이태훈	128728	신경준	128779	김 환	128830	송보근
40698	송화섭	40749	권두원	128729	최은석	128780	김다현	128831	이용기
40699	신재현	40750	김국회	128730	이채린	128781	오태현	128832	김동현
40700	송진우	40751	김규연	128731	윤정봉	128782	김영민	128833	한 금
40701	임한범	40752	김다슬	128732	박주협	128783	김웅수	128834	김현모
40702	최진우	40753	김동건	128733	이수지	128784	선원규	128835	김부승
40703	김희경	40754	김보름	128734	정인석	128785	정지민	128836	박현준
40704	김형준	40755	김성용	128735	김인혁	128786	이호진	128837	성기홍
40705	윤종권	40756	김영훈	128736	양지상	128787	고지운	128838	이상준
40706	정정운	40757	김진우	128737	이정택	128788	정선웅	128839	이기환
40707	이효열	40758	도한솔	128738	이상현	128789	고명근	128840	박우진
40708	김 건	40759	박간빈	128739	이정은	128790	이동영	128841	생원진
40709	강경민	40760	박명준	128740	최진혁	128791	장경근	128842	김채영
40710	좌성희	40761	배근우	128741	강하림	128792	김응태	128843	이상민
40711	김민승	40762	송치훈	128742	한찬희	128793	박종태	128844	차주현
40712	김경목	40763	신승엽	128743	채진병	128794	허관행	128845	강민호
40713	박재호	40764	심용욱	128744	송지훈	128795	김민우	128846	박장훈
40714	이 욱	40765	심혜연	128745	송우형	128796	김태현	128847	조형준
40715	이평안	40766	원종호	128746	이태형	128797	백승현	128848	김태민
40716	유희권	40767	이계인	128747	이상택	128798	문석호	128849	변수민
40717	오상현	40768	이문진	128748	강해진	128799	김도명	128850	김민호
40718	이소현	40769	이상훈	128749	김예진	128800	김웅배	128851	심효섭
40719	김호림	40770	이웅찬	128750	이정호	128801	박현호	128852	니종문
40720	지창준	40771	이유준	128751	지윤배	128802	강종국	128853	최경석
40721	김대연	40772	이찬진	128752	이건민	128803	이지형	128854	류연우
40722	이승철	40773	임재균	128753	최수연	128804	김호영	128855	김주영
40723	손희명	40774	임한결	128754	최수정	128805	민병호	128856	홍준호
40724	김병준	40775	정다정	128755	김한별	128806	최준일	128857	박병주
40725	유상안	40776	정알파	128756	김유은	128807	정유진	128858	정현주
40726	윤영훈	40777	조상일	128757	조은영	128808	이민진	128859	최승준
40727	이수창	40778	조현빈	128758	강태훈	128809	홍기훈	128860	김병호
40728	남태우	40779	주영서	128759	유익성	128810	김 겸	128861	박영빈
40729	원송희	40780	함정혁	128760	이주성	128811	김지연	128862	조민제

2017년도 제2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5월 31일)

128863	김기정	128914	이승배	128965	이훈희	129016	박수빈	129067	모영규
128864	김진석	128915	이현성	128966	김영민	129017	서제범	129068	윤관빈
128865	김상훈	128916	홍승현	128967	강병찬	129018	임진옥	129069	김지성
128866	유태정	128917	윤준서	128968	황용현	129019	전기표	129070	김민수
128867	이종현	128918	오수민	128969	이운재	129020	한상우	129071	김대근
128868	박영현	128919	김민진	128970	김리현	129021	황원휘	129072	성진태
128869	김종훈	128920	김진구	128971	방진우	129022	이희원	129073	박초미
128870	김민서	128921	백예슬	128972	이주영	129023	이수민	129074	조한나
128871	정희수	128922	황정희	128973	최덕룡	129024	민병필	129075	장대웅
128872	이화영	128923	임현빈	128974	박천영	129025	이상윤	129076	김종연
128873	이지선	128924	이성규	128975	김도형	129026	현상구	129077	윤병선
128874	지승현	128925	김대현	128976	임보영	129027	박수범	129078	김휘린
128875	이도희	128926	박종영	128977	김은솔	129028	홍승연	129079	박춘호
128876	김규태	128927	권민혁	128978	최홍영	129029	성준협	129080	김한솔
128877	이철호	128928	박준영	128979	이종희	129030	최학석	129081	송희경
128878	이수한	128929	오성현	128980	정이주	129031	김형중	129082	허진규
128879	강동호	128930	김희정	128981	이수빈	129032	노현용	129083	곽대영
128880	고유한	128931	강민중	128982	백인서	129033	이가찬	129084	양민규
128881	김대권	128932	강해린	128983	오충열	129034	백수호	129085	정재혁
128882	이건우	128933	최영호	128984	김효진	129035	최용섭	129086	김은기
128883	류현우	128934	최준혁	128985	김경환	129036	윤석민	129087	정상빈
128884	이시범	128935	서희찬	128986	김민석	129037	최광근	129088	방은지
128885	조경범	128936	오승윤	128987	김민수	129038	권오성	129089	남채림
128886	김지석	128937	정순호	128988	김시상	129039	백광우	129090	채수연
128887	김본수	128938	이만석	128989	류금주	129040	원종헌	129091	권태웅
128888	이민수	128939	노형준	128990	박병구	129041	김슬기	129092	주영우
128889	김태호	128940	최성호	128991	심선아	129042	이명준	129093	황병호
128890	진성길	128941	이아현	128992	연동민	129043	이수용	129094	추범진
128891	서준혁	128942	구소정	128993	오승윤	129044	정상민	129095	전영빈
128892	김홍철	128943	윤대규	128994	이요셉	129045	박용훈	129096	유호성
128893	황성재	128944	최재현	128995	이장규	129046	송민성	129097	이건희
128894	이경진	128945	임수정	128996	이정찬	129047	정성환	129098	유재현
128895	설형주	128946	김종욱	128997	이준서	129048	이지현	129099	차재민
128896	오창훈	128947	홍주표	128998	이한결	129049	이혜인	129100	김도원
128897	강민찬	128948	정재영	128999	이현준	129050	김지윤	129101	조태웅
128898	안정현	128949	정지현	129000	임정선	129051	김은혜	129102	이종렬
128899	김유라	128950	최진석	129001	전종현	129052	김은아	129103	구상모
128900	김하경	128951	민경서	129002	조한비	129053	박예은	129104	석명근
128901	문예진	128952	김규남	129003	한민호	129054	이푸름	129105	이광복
128902	김채림	128953	김민우	129004	허수빈	129055	박지혜	129106	배소영
128903	박창신	128954	김주엽	129005	김건웅	129056	홍솔민	129107	박소영
128904	문정기	128955	임상현	129006	박동환	129057	박은식	129108	류동호
128905	김규형	128956	이수민	129007	이정환	129058	이동재	129109	윤지수
128906	박용필	128957	황우건	129008	한재호	129059	유연철	129110	오서연
128907	장지호	128958	박재윤	129009	서혜지	129060	민경빈	129111	김지윤
128908	김도원	128959	채영미	129010	권혁준	129061	윤재형	129112	정용완
128909	신수민	128960	심하영	129011	김대연	129062	최종남	129113	백현우
128910	이현준	128961	박상혁	129012	김성현	129063	김찬우	129114	김해선
128911	한유진	128962	최문석	129013	김소현	129064	전현우	129115	정성훈
128912	지수민	128963	허경찬	129014	김현구	129065	최민기	129116	주성희
128913	김현우	128964	조창희	129015	문현성	129066	김태경	129117	정혜선

2017년도 제2차 정기승단자명단(2017년 5월 31일)

129118	정재혁	129169	박상근	129220	권효선	129271	정세화	4973	김소정
129119	박민지	129170	유준언	129221	김민하	129272	조수민	4974	김동현
129120	박설희	129171	한영태	129222	김예민	129273	조원희	4975	김현준
129121	이종호	129172	이종원	129223	김수현	129274	최인혁	4976	최진서
129122	박시우	129173	신 상	129224	신세미	129275	한상원	4977	가진욱
129123	유희준	129174	서동민	129225	박소연	129276	최선희	4978	서우민
129124	한하연	129175	조재현	129226	박민주			4979	유한글
129125	이재현	129176	이재섭	129227	김정민			4980	김동완
129126	김종인	129177	박유환	129228	서다혜	4930	황금정	4981	이기윤
129127	김동현	129178	서종명	129229	김진주	4931	함승우	4982	왕정환
129128	박상은	129179	유세현	129230	나은서	4932	김민준	4983	김지성
129129	장지희	129180	남우현	129231	김재종	4933	윤한솔	4984	김경형
129130	손유미	129181	서상원	129232	이재혁	4934	박계진	4985	배보성
129131	김건호	129182	유의철	129233	김경민	4935	이준혁	4986	황수현
129132	송상인	129183	박대형	129234	이민재	4936	박찬우	4987	김경필
129133	김동근	129184	강대휘	129235	정현진	4937	이정현	4988	이동욱
129134	서희태	129185	장한별	129236	장일호	4938	박성혁	4989	김재희
129135	민지영	129186	우용호	129237	정태호	4939	손은재	4990	김장훈
129136	김진태	129187	권오성	129238	서준혁	4940	김민재	4991	김수현
129137	양재석	129188	방종규	129239	이준희	4941	김태훈	4992	박은상
129138	김다윤	129189	안정주	129240	태경호	4942	김민성	4993	김창범
129139	이원관	129190	이상현	129241	위다슬	4943	김태훈	4994	홍재희
129140	정현나	129191	문준영	129242	김남준	4944	북태원	4995	김도형
129141	김초희	129192	심재춘	129243	맹준영	4945	맹예찬	4996	손주봉
129142	김우성	129193	홍수찬	129244	박정흠	4946	최 고	4997	박승환
129143	김보미	129194	전성일	129245	조하진	4947	이상민	4998	강민성
129144	우성민	129195	김규현	129246	성국진	4948	현 민	4999	박주영
129145	김남일	129196	오승희	129247	박성진	4949	이태호	5000	최다경
129146	이동주	129197	차현주	129248	유용주	4950	이해수	5001	박세영
129147	정하원	129198	박현준	129249	고은별	4951	이명화	5002	조성빈
129148	김성경	129199	하선욱	129250	김세현	4952	송창섭	5003	조성훈
129149	박영철	129200	김영준	129251	서석빈	4953	김민성	5004	구하록
129150	이현정	129201	정윤기	129252	양진석	4954	이재민	5005	정지원
129151	김지훈	129202	윤지연	129253	이권익	4955	유해성	5006	강재원
129152	최민수	129203	최도현	129254	임철민	4956	이선웅	5007	강동열
129153	안제언	129204	이시화	129255	조유미	4957	김성현	5008	김연주
129154	최윤성	129205	진세운	129256	현명우	4958	김건우	5009	김원규
129155	박민혁	129206	정용민	129257	고유희	4959	오규용	5010	박유빈
129156	김유신	129207	강요셉	129258	구동호	4960	임휘섭	5011	오재연
129157	박근용	129208	홍성욱	129259	김강준	4961	이승현	5012	오호연
129158	김두호	129209	한창빈	129260	김대호	4962	이현서	5013	현혜수
129159	이창석	129210	한동국	129261	김영호	4963	김도연		
129160	손가현	129211	윤은수	129262	유은빈	4964	손용원		
129161	박수우	129212	전성빈	129263	김혁진	4965	박용우		
129162	김현진	129213	은하정	129264	김현식	4966	조성윤		
129163	서광보	129214	김여란	129265	류도완	4967	태웅재		
129164	이미래	129215	이정훈	129266	박서현	4968	이재욱		
129165	정소은	129216	유지혜	129267	배혜빈	4969	김민준		
129166	박수빈	129217	이정환	129268	백독담	4970	이동학		
129167	이승만	129218	김유경	129269	이진형	4971	김소현		
129168	이준민	129219	한예린	129270	장재원	4972	이창학		

2017 동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 기간 : 2017년 2월 7~8일 • 장소 : 용인대학교 단호홀 • 수료인원 : 752명

지역	수료인원	이름
서울	104명	조현태, 최병구, 이정원, 원유철, 김대환, 한성희, 정우식, 김대현, 권성세, 최용배, 전승훈, 김두목, 김종태, 김재일, 홍석일, 공윤식, 윤용발, 김영빈, 신종호, 김유일, 유인기, 양창훈, 배형정, 이상화, 홍대희, 백종일, 전병철, 이흥덕, 이덕주, 김진성, 유희정, 곽동욱, 김재호, 서윤석, 조진완, 김용근, 이상진, 김정석, 조민선, 현숙희, 지수병, 한윤희, 유선목, 오성진, 최민복, 신재천, 이우택, 강만진, 남덕현, 함우형, 서해경, 이기모, 이진규, 하형덕, 박수철, 조준형, 김진환, 김하경, 신경수, 박성배, 최재두, 이승원, 권영우, 김동락, 이성준, 어민선, 윤석운, 김민지, 구형모, 홍승한, 임형석, 최아름, 김영혁, 나창현, 윤영달, 서하나, 정정연, 조승관, 박종원, 박민영, 김구연, 조형수, 김종성, 김현재, 김미연, 조민재, 김종인, 김혁수, 최정호, 박행남, 이기환, 김정태, 최호철, 정영재, 구찬모, 박치영, 김종원, 신광인, 이창수, 이현수, 강신영, 옥치일, 이천우, 이상은
부산	57명	정한수, 정한근, 고종필, 최봉학, 임영한, 최해용, 김호근, 이봉건, 이철규, 하형주, 손호근, 안국일, 이상철, 강경원, 주현중, 진영호, 정세영, 이준희, 김성진, 하민득, 배경일, 최희집, 성종경, 김희수, 황인수, 김태윤, 김현수, 유성철, 김보선, 정 혁, 하필구, 강병진, 이지미, 김현진, 류현철, 최성원, 김기범, 이승철, 이진성, 김민욱, 손우성, 이한주, 전만균, 장영익, 장진규, 배신권, 김종률, 이광식, 최성구, 조진영, 진하나, 최승언, 조유익, 김주호, 정영주, 전용길, 이성균
대구	46명	서삼덕, 나정기, 김상영, 김은식, 한기홍, 최창석, 엄양홍, 강선기, 심은보, 김태환, 주영훈, 이종대, 정양희, 박종률, 윤익훈, 박현동, 임선재, 허준호, 김정진, 이은학, 정성원, 김도곤, 이환영, 박준현, 정홍식, 이상석, 이근휘, 오주호, 송병운, 김재형, 배진범, 류현욱, 배정두, 강인호, 박선우, 이수만, 김우선, 최금매, 강춘호, 정동준, 이동준, 박성희, 이상진, 왕기춘, 송수근, 윤재순
인천	32명	전근삼, 이찬송, 이 진, 이봉훈, 김병삼, 박도혁, 이상돈, 유희준, 서윤석, 정 훈, 배정아, 임광영, 박미선, 김석일, 지창언, 이철민, 라현주, 허성민, 김상현, 이소정, 조성근, 서은미, 서혜린, 신기호, 이천동, 구흥모, 최 천, 김현용, 전진희, 강한빛, 정기식, 조현철
광주	12명	김기주, 이선행, 신대철, 최 원, 정원석, 설명환, 전영환, 오양근, 김영래, 이지연, 성태성, 박상희
대전	28명	오경환, 김성규, 안현석, 박한수, 이명환, 김성남, 조민호, 조정복, 손현미, 김중선, 오승영, 정재교, 김범식, 유성연, 강태구, 현승훈, 박병배, 김건아, 허재영, 김신규, 박소희, 박연복, 장대희, 이상진, 양성우, 김광선, 김윤철, 권수길
울산	19명	고택선, 손양목, 최종득, 강현상, 김영찬, 장순이, 이민호, 한중수, 박순윤, 최규진, 박진화, 윤재성, 김선후, 이정선, 최남혁, 김기태, 정재환, 최남지, 박해성
세종	1명	박노석
경기	115명	한상우, 이홍연, 박희성, 서임식, 김기천, 이호장, 성주환, 이강수, 표방원, 김순기, 이성수, 김형익, 최상호, 이명재, 정태호, 장순용, 선우경, 이용호, 문태웅, 홍영훈, 배상흠, 홍동환, 이춘관, 김진삼, 송재훈, 두관철, 서명근, 조민호, 이창현, 김오태, 이선형, 윤길용, 박광식, 이명주, 원우신, 김창식, 김 혁, 김영춘, 한준호, 이현경, 김아성, 백상현, 김창일, 양진호, 이종명, 박종환, 이준서, 조근형, 박문찬, 손정민, 김동춘, 박창석, 장성대, 임석원, 김진영, 최선호, 김은수, 허미숙, 김미란, 장 혁, 유제윤, 송대남, 전진호, 배강우, 김재훈, 이동준, 이민혁, 김동환, 김민수, 김선욱, 강금상, 오윤택, 윤성현, 전영해, 강조후, 조성욱, 서제승,

2017 동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지역	수료인원	이름
경기	115명	박상훈, 김정원, 우동명, 채성훈, 이은규, 김주유, 강서정, 이호성, 황보배, 조현철, 박민호, 정민우, 조준호, 조준현, 박성욱, 김원미, 성규진, 김종완, 정수덕, 이소연, 서정복, 유경훈, 문제일, 오승용, 서광필, 장성호, 이수연, 김건수, 손종현, 김민규, 박종성, 이상봉, 방귀만, 이상호, 안병근, 이상윤, 당성중, 김미정
강원	47명	한상호, 김종일, 백승호, 오정석, 김건우, 고재춘, 김남준, 김동일, 우학목, 진순조, 최령근, 정현국, 한상목, 이진수, 이준호, 장재심, 김준원, 윤경섭, 변성섭, 황해인, 정경하, 류지광, 정환구, 박세일, 이재호, 김희진, 최형석, 김선호, 배수인, 고종훈, 이종기, 이정익, 손주영, 이승규, 최수진, 정동현, 김민영, 김광용, 김진하, 성경미, 현혜숙, 박태원, 장호진, 이니영, 이기태, 원찬준, 조문근
충남	30명	이광규, 유영창, 이재선, 김정규, 김기춘, 김용하, 김헌태, 윤필병, 임희대, 심광석, 나성찬, 이건휘, 김찬선, 김용환, 안병준, 김태환, 조상훈, 원재연, 장호식, 이형영, 최병화, 권영민, 양원준, 김성희, 임호빈, 김주연, 김다솜, 현운상, 김재식, 김도윤
충북	28명	노승찬, 하재은, 조도희, 박준억, 이선우, 안호광, 석근호, 정준호, 박찬중, 윤혁로, 김재형, 문호용, 황철재, 천승호, 서영대, 어강선, 민덕기, 김휘목, 강호석, 김진선, 박성호, 이상규, 임태양, 박지영, 변상대, 이효열, 김영호, 이상묵
전남	39명	김용선, 임종안, 이동주, 옥춘호, 김태홍, 김성태, 김양호, 김철주, 강춘열, 유수현, 임채석, 김희중, 강정원, 손영기, 김대남, 정필중, 문선규, 최성철, 최성용, 양상훈, 정행률, 윤동훈, 이창구, 조용수, 이상현, 김경민, 박성수, 이홍근, 최승진, 박상현, 이은주, 윤태호, 최기선, 노박환, 김윤식, 김상철, 권성훈, 이형룡, 이혜인
전북	33명	황은성, 소재관, 이재선, 구상희, 나복근, 이영섭, 정영문, 정재훈, 홍기문, 박미자, 이원산, 노용우, 김정대, 김형철, 이진호, 문창식, 이지예, 손상호, 정지선, 김미화, 최영민, 김지혜, 이재화, 김주환, 문용범, 염소현, 최혁진, 정미선, 문태주, 홍상범, 최인호, 최정규, 김성민
경남	41명	정계환, 김유기, 김영학, 채영수, 최승엽, 옥경숙, 이지혜, 양세명, 진종연, 허교영, 김성룡, 안철순, 나용봉, 이몽우, 이길화, 김현채, 안호진, 고광철, 서광훈, 이상만, 이정렬, 박성모, 안수정, 배재진, 노태성, 김대건, 김철규, 박성남, 김경환, 노영환, 박용현, 조영진, 안준섭, 정다운, 정재현, 정수지, 김남현, 김태휘, 홍주형, 좌성희, 강태형
경북	66명	김종섭, 김경태, 강대진, 이성탁, 양희철, 박태춘, 이정희, 이호룡, 박훈식, 김예수, 전만배, 김정주, 윤종대, 이동일, 장병석, 정찬수, 김문석, 임남규, 전광수, 정영화, 이정하, 조은복, 손호진, 김도경, 황성민, 채대기, 양창렬, 김병찬, 신상호, 조태현, 민건식, 최민호, 조수희, 최성근, 이지환, 탁영석, 석정수, 이종호, 손태성, 최동규, 허종원, 이원덕, 양은중, 소 미, 정다운, 성문기, 김원중, 김상준, 김동호, 오성찬, 김혜민, 정은비, 최다솜, 박연지, 윤성희, 최호동, 김민수, 임유택, 김대봉, 최숙희, 황경환, 김중철, 박상용, 성철열, 이상태, 이무희
제주	25명	안도성, 유국상, 이경근, 김태홍, 임병기, 김경운, 홍창숙, 김형규, 김대훈, 김성현, 이준철, 오상수, 양우석, 신민영, 김시홍, 김보성, 강도영, 이은석, 고석형, 현후익, 김재범, 홍다미, 이동석, 김희철, 이재용
법무 연수원	21명	박노영, 정상규, 석길영, 김근영, 김현정, 신동신, 류창우, 황진석, 최기상, 장영진, 곽명규, 박병규, 신경경, 박동수, 박성대, 김태경, 김경준, 유병일, 강호준, 고명원, 강현성
상임 심판	8명	한순남, 조금목, 김은희, 현다경, 오창길, 김대욱, 김준환, 정호영

2017 전국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 기간 : 2017년 2월 18~19일
- 장소 : 대전경하온천호텔
- 수료인원 : 116명

지역	수료인원	이름
서울	17명	이정원, 박종양, 주종윤, 김현진, 이유준, 김재호, 권태욱, 조영태, 신재천, 장성욱, 함우형, 황희태, 박성배, 이혁, 박원희, 장진욱, 이진휘
부산	3명	원성욱, 전만균, 최주영
대구	3명	성정숙, 진정언, 황호준
인천	4명	박유봉, 이건용, 전진희, 이하윤
광주	3명	신윤식, 임준택, 오양근
대전	5명	김성구, 김성남, 오승영, 허재영, 류수동
울산	1명	오승엽
세종	1명	장주원
경기	11명	김원식, 차상윤, 이상학, 오관석, 김은수, 이춘환, 배강우, 이재석, 신무제, 박승민, 권희숙
강원	1명	오정석
충남	10명	이기우, 이명복, 강준규, 이민구, 한성만, 이재준, 유영창, 이제중, 김정규, 김기춘
충북	3명	황철재, 민덕기, 김진
전남	8명	남윤옥, 서민우, 유수현, 김대남, 최성용, 이상현, 박성수, 이흥곤
전북	15명	황은성, 류재규, 김인섭, 김광섭, 민성용, 김건, 정영문, 노용우, 송규원, 문창식, 이지예, 송은영, 최정규, 양정빈, 소재권
경남	17명	김유기, 권금영, 이지혜, 허교영, 나용봉, 황호철, 조영진, 지경률, 이종형, 박태건, 김연우, 홍현철, 김승규, 황경환, 김성룡, 이승준, 김귀자
경북	6명	김교상, 김홍천, 박영환, 이주엽, 오상호, 천성표
상임심판	8명	한순남, 조금목, 김은희, 현다경, 오창길, 김대욱, 김준환, 정호영

2017년 7~9월 일정 안내

월	날짜	행사명	날짜
7	12 ~ 14	2017 하계전국대학유도연맹전	강원, 인제
	13 ~ 16	2017 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키르기스스탄
	18 ~ 20	제33회 교보생명컵꿈나무유도대회	경북, 김천
	20 ~ 24	2017 하계전국중·고유도연맹전	전남, 영광
8	9 ~ 10	2017 하계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전북, 고창
	11 ~ 12	2017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전북, 고창
	17 ~ 20	2017 추계전국중·고유도연맹전	강원, 동해
	20 ~ 24	제29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도	대만
	23	제3차 정기승단심사	한국유도원
	28 ~ 9.3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9	12 ~ 14	2017 추계전국실업유도연맹전	강원, 동해

2017년~2018년 유도복 공인업체

대명스포츠(호랑이)	02-441-0806
무술사	02-2237-9991
한길스포츠	051-625-3007
유심스포츠(쿠사쿠라)	051-231-1555
MS스포츠(Fighting Films)	070-8699-5888
제우스스포츠(아디다스)	02-3019-3842
엠코리아	02-2233-6933
다오코리아	063-278-9991
DH스포츠(미즈노)	010-6474-1372
오성스포츠	02-858-8436
짐마켓(BUDO SPORT)	070-8222-7424
야와라스포츠	031-455-0808

시도지부 유도회 및 연맹 주소록

시도명	회장	사무실 주소	전화 / 팩스 / 이메일
서울	이천우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서울특별시체육회 204호	T 02-490-2841~2 F 490-2840
부산	서정우	부산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양정모실내체육관	T 051-505-7444 F 505-7445
대구	박민수	대구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T 053-957-6565 F 953-2548
인천	김대용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문학경기장 내	T 032-881-7733 F 881-7744
광주	염창근	광주시 서구 금화로 278(품암동) 빛고을체육관 2층	T 062-228-7616 F 226-6291
대전	오경환	대전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내 한밭체육관1층	T 042-254-6717 F 254-6716
울산	김종석	울산시 남구 봉월로 38번길 32(신정동) 중하체육관 내	T 052-258-3805 F 258-3806
세종	박노석	세종시 조치원읍 대침로 19	T 010-3030-9378 E dsjudo@hanmail.net
경기	최광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3번길 127(오목천동) 경기도유도체육관내	T 031-293-8975 F 294-8975
강원	박승용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함춘로 25-9 종합운동장 내 11호	T 033-481-9220 F 481-9221
충남	조용철	충남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내	T 041-553-6197 F 553-6196
충북	최광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514번길 70(용정동)	T 043-284-7300 F 284-5161
전남	임종안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3 팔마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순천시립 팔마유도관 내	T 061-745-6433 F 745-6434
전북	권순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136 연금빌딩 401호	T 063-223-4486 F 223-4487
경남	윤병석	경남 사천시 주공1길 8-24(벌리동) 사천시유도체육관 내	T 055-832-6400 F 835-8765
경북	엄득웅	경북 영천시 운동장로 60 (교촌동) 실내체육관 내	T 054-334-2829 F 331-5960
제주	문원배	제주도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일동) 제주유도회관 내	T 064-712-3397 F 711-1833
한국중고연맹	이무희	경북 포항시 용흥로 123(용흥동) 동지고 내 한국중고연맹 사무실	T 054-255-0413 F 248-2946 010-9133-0413(박훈식)
한국대학연맹	김병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 무도대학 4층(한국대학연맹)	T 031-8020-2966 F 8020-2882 010-3699-5037(윤현)
한국실업연맹	김태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21 포항패밀리온천	T 054-285-4001 F 043-284-7300 010-5308-0200(정준호)

KEB하나은행의 혁신이 손님의 더 큰 기쁨을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

[유로머니誌 선정 총10회수상]

손님께서 칭찬해주셔서

소비자만족도 1등 은행

[한국소비자원 조사]



유도는 하나다! 하나는 유도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스트리트들 홀로 질주할 때 나는 도심 속 카운트를 잠재우는 나만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샘 앤더슨

飯店

adidas

러닝, 도시의
심장을 깨우다



퓨어부스트 DPR
러닝, 도시의 심장을 깨우다